

예술가의 초대

The Monthly Magazine of the Busan Cultural Center

2018
vol.313 01



신년특집
(재)부산문화회관 2018년 주요계획

오페라 연출가 이의주의 백 스테이지 오페라
2018년 대한민국 오페라 70주년을 시작하며...

유럽 박물관 기행
역대 교황들의 보고(寶庫) 바티칸 박물관



BEETHOVEN SYMPHONY CYCLE

CONCERT **IV**

베토벤 교향곡 제3번 <영웅> Beethoven Symphony No. 3 <Eroica>
차이코프스키 로코코 주제에 의한 변주곡 Tchaikovsky Variations on a Rococo Theme

지휘 금난새 Gum Nanse 첼로 이정란 Jungran Lee
연주 뉴월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2018. 1. 20. Sat. 17:00
F1963 석천홀

티켓
R석 40,000원 | S석 30,000원

예매
YES24 1544-6399 ticket.yes24.com
인터파크 1544-1555 www.interpark.com

문의
F1963 051-760-2604 www.f1963.org

Rotary 3661지구



엔젤피스예술단
Angel Peace Art Group

국제로타리 3661(부산)지구

2018 희망 **빅** 콘서트

출 연

가수/ 조성모

명창/ 박성희

테너/ 신동원

소프라노/ 오미선

발레/ 이원국 발레단

합창/ 부산·김해시립합창단

연주/ 네오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지휘/홍성택)

합창·무용(타악)외/ 엔젤피스 예술단



NEW YEAR'S CONCERT

2018



2018. 1. 9(화) 19:30

벅스코 오디토리움

공연문의 | 637-3661~2



눈과 세상 사이
가득차기 시작한 것은
그 순간이었다



심재광 선생님을 잊지
못하시고, 또 다시 선생님의 영혼이
영원히 살아 계신다



4월에는 제1회 3.1
운동 80주년 기념, 7
월에는 3.1운동 80
주년을 기념합니다



이 전시회, 관람객은
눈과 세상을 잊은 채,
영원히 살아있는 것이



LIFE BUSAN

빛나는 시작,
눈부신 기억
라이프 사진展

2018.1.1 MON
— 4.8 SUN

부산문화회관
전시실

2018년을 시작하는 당신을 위한, 올 겨울 가장 따뜻한 인생전시 1월 1일 오픈!

© The Korea Cultural Center & LIFE Museum

빛나는 시작, 눈부신 기억 라이프 사진전

2018년 1월 1일(월)~4월 8일(일) 부산문화회관 전시실

입장료 성인(만 19세~64세) 1만 3천원, 청소년(중·고교생) 1만 1천원, 어린이(48개월~초등학생) 9천원, 45개월 미만 무료(증빙서류 지참) ※만 65세 이상,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상이군경, 장애인 1급~6급, 기초수급 대상자 6천 5백원(본인에 한함, 중복할인 불가)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070-7542-8531, www.seelife.co.kr

‘보고, 놀라고, 즐기고, 배우자’ 라이프 사진전의 각별한 이벤트

2018년을 맞는 특별한 오픈 전야제

2017년 12월 31일에 준비된 오픈전야제 ‘라이프 카운트다운’은 부산문화회관의 제야음악회와 더불어 오후 8시부터 2018년을 알리는 0시까지 진행된다. 전시장 곳곳에 숨어있을 새해를 맞이하는 특별한 경험을 기대해보자.

관람자의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도슨트 프로그램

부산 전시 최초로 관객 경험 중심의 프로그램이 준비된 <라이프 사진전>은 다양한 눈높이로 전 연령대를 아우르는 맞춤형 도슨트로 관람객의 이해를 돕는다. 전시 큐레이터가 모든 작품 속에 깃든 이야기를 꼼꼼히 설명하는 ‘라이프 마라톤’을 비롯해 영웅과 위인을 중심으로 설명하는 학생들을 위한 ‘라이프 위인전’, 근·현대의 주요 사건을 중심으로 설명하는 ‘라이프 세계사’, 7080세대가 기억하는 시대와 인물로 엮은 ‘라이프 7080’까지 독특한 운영방식이 돋보인다.

유명인사가 직접 들려주는 오디오 가이드

부산전시를 위해 특별히 기획된 ‘라이프 24인터뷰’는 전시에 소개되는 24장의 사진속 인물과 사건을 보다 특별히 들려줄 수 있는 오디오 가이드이다. 성녀 마더 테레사에 대한 설명은 이해인 수녀님이, 20세기의 명 지휘자 레너드 번스타인은 부산시립교향악단 상임지휘자 최수열 씨가 설명한다. 우리나라 토종밀에서 영향을 받아 서양 밀의 수확량을 획기적으로 높여 전 세계적인 식량난에 큰 영향을 미친 공로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했던 식물학자 노먼 볼로그 박사는 진주에서 토종밀을 지켜가고 있는 농부 백관실 씨의 목소리로 들을 수 있다.

전시장에서 경험하는 특별한 이벤트

이밖에 깜깜한 전시공간에서 자신만의 손전등으로 작품을 관람하는 ‘라이프 라이트’, 오직 한 커플을 위한 전시장에서의 스몰 웨딩, 부산문화회관 인근 문화공간과 카페, 맛집과 연계해 볼거리, 먹거리를 함께 즐길 수 있는 ‘라이프 사진전_行’ 등 놀라운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다.

SPECIAL +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36회 정기연주회
부산시향과 최수열의 '2018 신년음악회'



10



16

SPECIAL +

신년특집
부산문화회관 · 부산시민회관 2018년 신년계획
부산시립예술단 2018년 신년계획



36

CULTURE +

유럽 박물관 기행
역대 교황들의 보고(寶庫) 바티칸 박물관



58

NEWS +

부산문화회관 소식

contents

SPECIAL +

- 08 **신년사**
시민과 예술이 문화로 공명하는 2018년
- 10 **커버스토리**
부산시향과 최수열의 '2018 신년음악회'
- 12 **부산문화회관 · 부산시민회관 1월 공연 캘린더**
- 16 **신년특집**
부산문화회관 · 부산시민회관 2018년 신년계획
- 24 **신년특집**
부산시립예술단 2018년 신년계획

CULTURE +

- 34 **오페라 연출가 이의주의 백 스테이지 오페라**
1948년 한국 오페라 초연 '라 트라비아타'
- 2018년 대한민국 오페라 70주년을 시작하며...
- 36 **유럽 박물관 기행**
역대 교황들의 보고(寶庫) 바티칸 박물관
- 40 **테마가 있는 여행**
아름다운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생태도시 순천

VIEW +

- 45 **프리뷰**
- 48 **리뷰**
- 50 **프로그램 가이드**

NEWS +

- 55 **SNS 서포터즈 공연관람기**
- 56 **새로 나온 음반 / 새로 나온 책**
- 58 **부산문화회관 소식**

월간 문화예술정보지

예술의 초대

2018년 1월호 통권 313호
발행처 (재)부산문화회관
48534 부산광역시 남구 유엔평화로 76번길 1
Tel. 051 607 6000
발행인 박인건 편집인 조요한 편집 정복엽
발행일 2017년 12월 25일
디자인·제작 효민디앤피

시민과 예술이 문화로 공명하는 2018년



2018년 희망찬 무술년(戊戌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무(戊)년이 들어가는 해는 역사적으로 한반도에 국운이 상승하는 해이기도 합니다. 특히 올해는 '황금개의 해'라고도 합니다. 늘 활기차고 밝은 개처럼 2018년에는 무술년의 길운을 받아 더욱더 기운찬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 재단법인으로 새롭게 출발했던 부산문화회관은 다양한 콘텐츠와 품격 높은 공연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고 전문적인 운영, 수준높은 문화서비스로 부산문화의 본당으로 거듭나기 위해 많은 노력들을 기울여왔습니다.

또한 쾌적한 공연시설, 시민들을 위한 편의시설 확보를 위해 지난 한 해, 회의장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던 국제회의장을 클래식 전용홀인 챔버홀로 리모델링하고 노후화된 중극장을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수용할 수 있는 전문 공연장으로 새롭게 탈바꿈시키면서 부산문화회관을 찾은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지난해 10월에는 부산시민회관이 (재)부산문화회관 산하로 통합되면서 명실상부 부산 문화 예술의 중추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올해는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 속에서 문화에 대한 시민적 욕구가 날로 높아지는 만큼 대중성과 예술성, 다양성과 차별성을 아우르는 품격 높은 공연, 전시를 기획, 시민 모두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일 계획입니다. 우선 2018년 새해 시작과 함께 1월 7일 부산문화회관을 찾는 '쇼팽 콩쿠르 한국인 첫 우승자'인 피아니스트 조성진을 비롯해 2017년 부조니 국제피아노콩쿠르 우승자 이반 크반, 서정적이면서도 감성을 자극하는 뉴에이지 피아니스트 유키 구라모토, 러시아의 대표적인 관현악단 러시아 내셔널 오케스트라, 오스트리아를 대표하는 챔버 오케스트라 카메라타 잘츠부르크 등 세계 정상급 연주자와 연주단체들이 올 한 해 부산문화회관을 찾습니다. 또, 지난해 다장르 공연장으로 새롭게 거듭난 중극장을 비롯해 클래식 전용홀인 챔버홀, 그리고 어린이 전용극장인 사랑채극장까지 극장별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프로그램으로 관객과 만날 예정입니다.

1973년 개관과 함께 45년이라는 오랜 세월을 부산시민과 함께해온 부산시민회관은 2018년 한 해 더욱더 시민들에게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시민친화적인 프로그램으로 새로운 비상을 준비합니다. 특히 올해 (재)부산문화회관 시민회관본부로 본격적인 첫 걸음을 내딛는 부산시민회관은 행사 위주의 대관공연에서 벗어나 품격 있는 공연 프로그램을 유치, 다양한 장르의 공연, 전시가 열리는 공연장으로서의 기능을 확대하고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시민과의 소통을 확대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또, 올해는 해외교류 공연을 통한 국제역량 강화로 세계와 교류하는 글로벌 아트센터로서의 도약을 시도합니다. 더불어 국제적 네트워크를 통한 부산시립예술단의 해외공연을 적극 추진하면서 우리문화의 우수성과 함께 문화도시로서의 부산을 적극 알리나갈 계획입니다. 이에 발맞춰 부산문화를 대표하는 부산시립예술단은 부산의 문화사절단으로 다양한 국제행사에 참가, 우리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고 문화도시 부산을 홍보하는 데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이밖에도 부산시립예술단은 소외계층, 다문화가정, 직장인 등을 위한 관객 맞춤형 순회공연을 통해 올 한 해도 문화나눔에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입니다. 새해에도 부산문화를 위해 땀 흘릴 부산시립예술단에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음악에도 쉽표가 있고 미술에도 여백이 있듯이 (재)부산문화회관은 2018년 올해도 일상에 지친 시민들에게 위로와 감동을 전하는 우리 삶의 쉼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8년 무술년 새해를 맞아 여러분 가정마다 만복과 화평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8. 1. 1

(재)부산문화회관 대표이사 박인건



부산시립교향악단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36회 정기연주회

부산시향과 최수열의 '2018 신년음악회'

'2017 제야음악회'로 2017년 한 해를 마무리한 부산시립교향악단이 1월 19일 '2018 신년음악회'로 부산음악애호가들에게 희망의 선율을 선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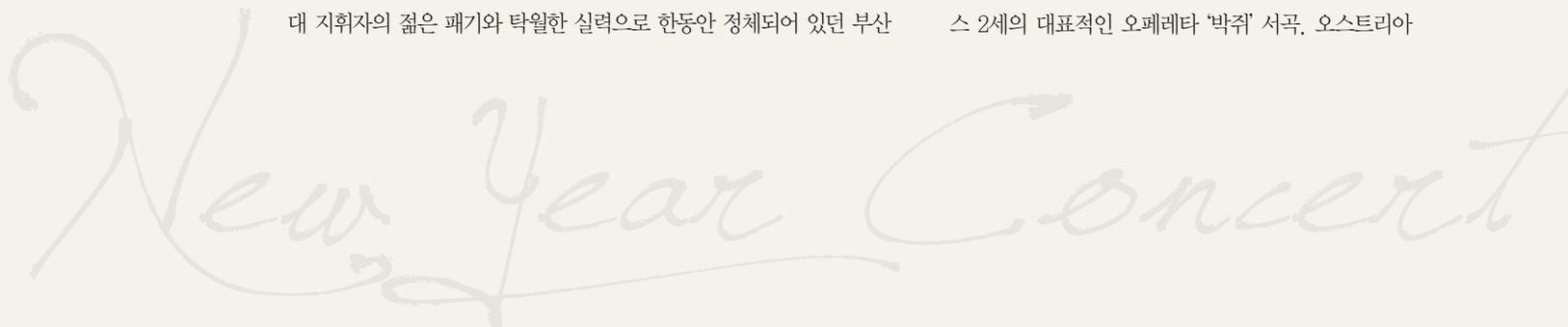
상임지휘자 최수열이 지휘하고 현존하는 사물놀이단체 중 최고의 팀워크를 자랑하는 '사물광대'가 협연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신년음악회의 단골 레퍼토리인 요한 슈트라우스 2세의 '박쥐' 서곡을 시작으로 강준일의 사물놀이와 관현악을 위한 협주곡 '미당', 드뷔시의 관현악을 위한 3개의 교향적 스케치 '바다'를 들려준다. 특히 부산시립교향악단과 사물광대의 절묘한 앙상블이 어우러지는 협주곡 '미당'은 우리의 전통 농악장단을 소재로 국악과 양악의 리듬감을 조화시킨 곡으로, 신명 넘치는 사물가락으로 무술년 새해의 문을 힘차게 열어준다.

지난해 9월 부산시립교향악단 제11대 상임지휘자로 취임한 최수열은 30대 지휘자의 젊은 패기와 탁월한 실력으로 한동안 정체되어 있던 부산

시립교향악단에 새로운 기운을 불어넣고 있다. 2014년부터 서울시립교향악단 부지휘자로 활동하면서 '21세기가 원하는 이상적인 젊은 지휘자'라는 호평을 받기도 한 최수열은 그동안 다양한 무대를 통해 창의적인 프로그래밍 감각과 현대음악에 대한 탁월한 재능을 가진 지휘자로 평가받으며, 포브스코리아 '2030 파워리더 30인', 월간객석 '차세대를 이끌 젊은 예술가 10인'에 지휘자로서는 최초로 선정된 바 있다. 특히 현대음악의 스페셜리스트로 꼽히는 최수열은 부산시립교향악단 취임 후 '2018-2019 슈트라우스 교향시 전곡 사이클' 시리즈를 통해 리하르트 슈트라우스 교향시 전곡을 음악애호가들에게 소개해오고 있다.

이번 신년음악회의 첫 곡은 '왈츠의 왕' 요한 슈트라우스 2세의 대표적인 오페레타 '박쥐' 서곡. 오스트리아

1월 19일 금요일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R석 2만원, S석 1만 5천원, A석 1만원, B석 5천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재)부산문화회관 607-3111~3





지휘자 최수열 ©박재형



사물광대-김한복(징)/장현진(북)/박안지(쟁과리)/신찬선(장구)

PROGRAM

요한 슈트라우스 2세	오페레타 '박쥐' 서곡
강준일	사물놀이와 관현악을 위한 협주곡 '마당'
드뷔시	관현악을 위한 3개의 교향적 스케치 '바다'
	바다 위의 새벽부터 한낮까지-물결의 희롱-바람과 바다의 대화

'오페라의 아버지'라 불리기도 하는 요한 슈트라우스 2세는 그의 장기인 왈츠와 폴카를 심본 활용해 빈의 귀족적인 취향을 오페레타에 가득 불어넣었다. 특히 매년 새해 유럽의 오페라 극장들에서 단골로 무대에 오르는 오페레타 '박쥐'는 19세기 음악과 환락의 도시 빈을 무대로, 상류사회의 일면을 풍자와 해학으로 통쾌하게 비판하는 내용으로 이 중 서곡은 폴카 풍의 무곡이 앞으로 전개될 유쾌한 내용을 암시한다.

이어서는 지난 1995년 UN총회장에서 열린 'UN창립 50주년 기념음악회'에서 정명훈이 지휘하는 KBS교향악단과 김덕수 사물놀이가 협연, 관객들의 기립 박수를 받았던 강준일 곡 사물놀이와 관현악을 위한 협주곡 '마당'을 연주한다. 삼도농악에 기반을 둔 사물놀이 가락을 모티브로 한 전체 3악장의 '마당'은 첫째 마당에서는 오갈재굿-덩덕궁-풍년굿-굿거리로 이어지는 호남농악 가락을 중심으로 풍년을 기원하는 풍년제를 노래하며, 둘째 마당에서는 풍년을 맞은 명절날 잔치 풍경이 그리고 셋째 마당에서는 길군악-반길군악-상재-별달거리-짹쇠 등 영남가락으로 명절날 장터의 질펀한 판굿놀이가 신명나게 펼쳐진다. 작곡가 강준일은 서울대학교 물리학과 출신으로 독학으로 작곡을 공부한 후 동양의 정신에 서양의 기술을 수용하는 작품세계를 통해 한국 창작음악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

이번 무대에서 사물놀이의 진면목을 선사할 '사물광대'는 김한복(징), 박안지(쟁과리), 신찬선(장구), 장현진(북)으로 구성된 사물놀이단체로, 지난 30여 년간 환상적인 호흡으로 관객과 만나오고 있다. 김덕수, 이광수, 김용배, 최종실 등 원조 사물놀이의 첫 번째 공식제자이자 첫 번째 세계사물놀이겨루기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으며 국악계의 주목을 받은 이들은 지난 1988년 1월, 김덕수패 사물놀이로부터 '사물광대'라는 영예로운 이름을 부여받으며 활동을 시작한 후 명실상부 최고의 사물놀이단체로 많은 무대에 서왔다.

마지막 곡은 '인상주의 음악'을 창안한 드뷔시의 걸작, 관현악을 위한 3개의 교향적 스케치 '바다'. 낭만주의에서 현대에 이르는 가장 중요한 전환점을 이루는 '인상주의 음악'은 전통적인 화성이나 선율, 형식미 등을 뒤로하고 자신의 눈에 보이는 인상, 분위기, 느낌 등을 그대로 표현하는 이미지즘(imagism)적인 음악들을 의미한다. 인상주의 음악의 정점이라 평가받는 '바다'는 드뷔시가 상상한 바다를 감각적이면서도 환상적인 색채감으로 표현, 바다에 대한 동경과 사랑을 담고 있다.

01

2018 JAN

부산문화회관
공연일정

표 공연은 (재)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에 한하여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에서 예매하십시오.
- 이 공연·전시일정은 주최 측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공연정보는 www.bscc.or.kr를 click하세요.
- 초대(무료)공연은 반드시 주최 측에 문의 바랍니다.

대 대극장 중 중극장

캠 챔버홀 아 야외광장

사 사랑채극장

SUN	MON	TUE
	1	2
7	8	9
<p>대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조성진 피아노 리사이틀' 17:00 11만원·9만원·7만원·5만원 (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캠 이주는 피아노 독주회 '함머클라비어와 4색발라드' 20:00 전석 2만원 영음예술기획(02-581-5404, 010-6383-0210)</p>
14	15	16
<p>중 CJ문화재단 2018 신년콘서트 19:00 초대 마이크 임팩트(02-722-9303)</p>		
21	22	23
28	29	30

WED	THU	FRI	SAT
3	4	5	6
10	11	12	13
			<p>중 한음챔버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17:00 초대 한음챔버오케스트라(010-9383-0241)</p>
17	18	19	20
<p>중 부산시립무용단 특별공연 안무가 양성 프로젝트 II '몸으로 쓰는 시' 19:30 전석 5천원 부산시립무용단(607-3121~2)</p>		<p>대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36회 정기연주회 '부산시향과 최수열의 2018 신년음악회' 19:30 2만원·1만5천원·1만원·5천원 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3)</p>	
24	25	26	27
	<p>중 CANTABILE 칸타발레 19:30 전석 2만원 仙기획(010-7506-2500)</p>		<p>대 2018 KB손해보험과 KB국민카드와 함께하는 신년음악회 19:00 초대 이움커뮤니케이션즈(02-573-0990)</p> <p>중 시네마 클래식 17:00 전석 2만원 (주)오앤엠 엔터테인먼트(02-6396-0302)</p>
31			
<p>중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특별연주회 2018 신년음악회 '영산회상&국악관현악의 만남' 19:30 1만원·5천원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607-3124)</p>		<p>전시실 (재)부산문화회관 기획전 빛나는 시작, 눈부신 기억 '라이프 사진전' 1월 1일(월)~4월 8일(일) 문의 : (재)부산문화회관(070-7542-8531)</p>	<p>입장료 : 성인(만19세~64세) 1만 3천원 청소년(중·고교생) 1만 1천원 어린이(48개월~초등학교) 9천원 45개월 미만 무료(증빙서류 지참)</p>

01

2018 JAN

부산시민회관
공연일정

14

표 공연은 (재)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에 한하여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에서 예매하십시오.
- 이 공연·전시일정은 주최 측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공연정보는 www.bscc.or.kr를 click하세요.
- 초대(무료)공연은 반드시 주최 측에 문의 바랍니다.

대 대극장

소 소극장

야 야외광장

SUN	MON	TUE
	1	2
7	8	9
14	15	16
21	22	23
<p>대 채환의 논픽션 모노뮤지컬 '마흔 즈음에_김광석을 노래하다' 14:00, 17:30 5만5천원·3만3천원 (주)화랑엔터테인먼트(1644-5564)</p> <p>소 뮤지컬 '어린왕자' 11:00, 14:00 전석 4만5천원 극단 엄청난 친구들(010-3914-6617)</p>		
28	29	30

WED	THU	FRI	SAT
3	4	5	6
10	11	12	13
17	18	19	20
	<p>대 2018 부산시민회관 신년음악회 19:30 전석 1천원 (재)부산문화회관 시민회관본부(630-5200)</p>		<p>스 뮤지컬 '어린왕자' 11:00, 14:00, 16:00 전석 4만5천원 극단 엄청난 친구들(010-3914-6617)</p>
24	25	26	27
			<p>스 서정빈 & 장현우 기타리사이틀 15:00 전석 1만원 서정빈(010-9513-6025)</p>
31			
<p>스 부산시민회관 문화가 있는 날 무료영화상영회 '파수꾼' 14:00 무료 (재)부산문화회관 시민회관본부(630-5234)</p>			



365일 문화의 향기가 넘치는 부산문화회관

지난 한 해 관객들의 문화적 욕구에 부응하는 다채로운 기획 공연으로 관객들을 불러모은 (재)부산문화회관에서는 올해도 풍성한 프로그램으로 특별한 무대를 선사한다.

2018년 더욱 업그레이드된 시리즈 무대

지난해 재단법인으로 첫 발을 내딛은 후 시작된 부산문화회관만의 특별한 기획시리즈는 올 한 해 더욱 업그레이드된 무대로 관객과 만난다. 우선 '불멸의 악성(樂聖) 베토벤 교향곡 전곡을 감상할 수 있는 특별한 무대 '2017-18 베토벤 심포니 사이클'은 2018년에도 계속된다. 지난해 10월, 베토벤 교향곡 제1번을 시작으로 올해 6월까지 9곡의 베토벤 교향곡 전곡을 만날 수 있는 '베토벤 심포니 사이클'은 1월 20일 교향곡 제3번, 3월 3일 교향곡 제8번, 3월 24일 교향곡 제4번, 4월 21일 교향곡 제7번, 5월 26일 교향곡 제6번, 6월 23일 교향곡 제5번을 남겨두고 있다. 특히 한국이 자랑하는 지휘자 금난새와 그가 음악감독으로 있는 뉴월드 필

하모닉 오케스트라가 완성도 높은 무대를 선사하며, 베토벤 교향곡과 더불어 낭만파 시대의 대표적인 기악 협주곡을 함께 편성, 실력 있는 연주자들의 협연무대도 함께 감상할 수 있어 관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저녁시간 공연장을 찾을 수 없는 관객들을 대상으로 오전에 열렸던 클래식 입문 프로그램 '마티네 콘서트'는 3월부터 연간 6회 진행된다. '오전 중'이라는 뜻의 프랑스어 '마탱(matin)'에서 유래된 '마티네'는 그 어원 그대로 연극, 오페라, 음악회 등 낮 공연을 가리키는 용어로, 낮 시간이 자유롭거나 저녁시간을 내기 어려운 학생, 어린이, 주부, 노인 등을 주 관객층으로 하는 공연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음악계의 괴물'이라는 별칭을 얻고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조윤범과 부산시립교향악단이 다른 곳에서는 만날 수 없는 깊이있는 해설음악회를 선사한다. 지난 한 해 뛰어난 말솜씨와 해박한 지식으로 관객들을 클래식의 세계로 안내했던 조윤범은 현악4중주단 '콰르텟엑스'의 리더로, 지난 2007년부터 극동아트TV(전 예당아트TV)의 '콰르텟엑스와 함께하는 조윤범의 파워클래식'을 진행하며 해설자로 명성을 날렸으며 현재는 라디오 '노홍철의 굿모닝 FM'의 클래식 음악 코너 진행자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지난해 실력파 해외 실내악단들이 전하는 폭넓은 레퍼토리로 실내악의 매력을 만날 수 있었던 '그레이트 챔버 시리즈'도 올 한 해 다시 관객들을 찾아온다. 지난해 '그레이트 챔버 시리즈



즈'에서는 오스트리아 제2의 도시인 그라츠를 대표하는 '그라츠 챔버 오케스트라', 빈 국립 폭스오퍼의 악장 및 수석단원들로 구성된 6중주 앙상블 '비엔나 챔버 플레이어즈', 그리고 일본을 대표하는 원전 오케스트라 '일본 텔레만 실내악단'이 부산을 찾았으며, 올해도 탁월한 연주실력을 갖춘 실내악단을 초청, 다채로운 앙상블과 특색 있는 레퍼토리로 관객들에게 특별한 무대를 선사할 예정이다. '2018 그레이트 챔버 시리즈'는 4월 13일, 7월 13일, 11월 23일 세 차례 진행된다.

클래식과 철학의 만남으로 많은 화제를 낳았던 '노자와 베토벤'도 올해 '고주망태(孤酒忘態)'라는 새로운 주제로 다시 무대에 오른다. 현 시대의 답답함을 인문학으로 속 시원히 풀어주는 철학자 최진석 서강대학교 교수와 온화한 카리스마의 마에스트로 오충근 교수가 진행하는 '노자와 베토벤'은 동양의 철학과 서양의 클래식을 통해 현 시대의 고민과 문제에 대한 해답과 위로를 전하면서 많은 마니아층을 형성해왔다. 지난해는 인간의 모든 감정을 아우르는 철학사상인 '희로애락(喜怒哀樂)'을 테마로, 철학과 음악이 함께하는 치유와 공감의 시간을 선사하기도 했던 '노자와 베토벤'은 올해 3월 31일 첫 공연을 시작으로 6월 23일, 10월 6일, 12월 8일 네 차례 진행된다.

지난해 8월 부산, 울산, 경남지역 최초의 클래식 전용홀인 부산문화회관 챔버홀이 개관되면서 축하무대로 마련됐던 '챔버홀 개관 페스티벌'은 올해는 '부산 챔버 페스티벌'로 그 맥을 이어간다. 8월 15일부터 26일까지 국내 정상급 어쿠스틱 음향을 자랑하는 챔버홀에서 펼쳐지는 '부산 챔버 페스티벌'은 올해도 화려한 라인업과 풍성한 레퍼토리로 정통 실내악의 정수를 들려준다.

관객의 문화적 욕구에 부응하는 다채로운 무대

2018년 올 한 해도 부산문화회관에는 세계 정상급 연주자와 연주단체의 발길이 이어진다. 또, 클래식에서부터 뮤지컬, 연극, 무용, 그리고 대중가수 콘서트까지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관객들을 기다리고 있다.

희망찬 새해를 시작하는 1월 7일에는 '쇼팽 콩쿠르 한국인 첫 우승자'로 전 세계 '조성진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는 피아니스트 조성진이 부산을 찾는다. 최근 세계 최정상급의 오케스트라인 베를린 필하모닉과의 협연을 성공적으로 치루면서 마에스트로 사이먼 래틀로부터 '건반의 시인과 함께 연주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는 극찬을 받은 바 있는 조성진은 특히 이번 공연을 앞두고 진행된 티켓 오픈에서 예매가 시작된 지 눈 깜짝할 사이에 전석이 매진되며 막강한 티켓 파워를 자랑하기도 했다.

2월에는 현재 유럽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연주자들이 대거 부산을 찾는다. 2월 24일에는 소프라노 김리라, 임수연, 정한나, 테너 이명현, 이준범, 정필립, 바리톤 이규봉, 조병익, 베이스 김신호 등 지금 현재 유럽 오페라 무대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성악가들을 만날 수 있는 '유럽 신인 오페라 갈라 콘서트'가 펼쳐진다. 뒷날인 2월 25일에는 독일 하노버 국립음대 및 프랑스 파리국립음악원 교수로 있는 피아니스트 올리비에 가르동을 비롯해 프랑스 파리 국립고등음악원, 프랑스 말메종 국립음악원, 니스 국제음악아카데미 교수로 있는 피아니스트 변애영, 프랑스 롱 티보 국제콩쿠르 우승, 이태리 파가니니 국제콩쿠르 우승에 빛나는 바이올리니스트 로랑 코르샤, 헬싱키 시벨리우스 음악원 교수이자 핀란드 난탈리 음악제 예술감독인 첼리스트 아르토 노라스, 그리고 첼리스트 최주연, 플루티스트 필립 베르놀드, 플루티스



2

- 1 조성진
- 2 금난새
- 3 서혜경



3



신년특집

부산문화회관
2018년
신년계획

트 이소영, 피아니스트 김가람 등 유럽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연주자들의 실내악 무대를 감상할 수 있는 '유럽의 거장들과 함께하는 실내악의 밤'이 펼쳐진다.

'건반 위의 여제' 피아니스트 서혜경은 2월 27일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에서 오랜만에 부산 관객과 만난다. '피아노로 그리는 그림'이라는 부제로 열리는 이번 독주회에서는 2018년 인상주의의 대표적 작곡가인 드뷔시 서거 100주년을 기념해, 그의 작품 'Images(Book1)'를 통해 몽환적이면서도 회화적인 악풍을 소개하고, 러시아 국민악파 5인조 가운데에서도 가장 독창적인 작곡가로 평가 받는 무소르그스키의 곡 중 그의 대표작인 '전람회의 그림'을 선보인다. 특히, '전람회의 그림'은 서혜경이 젊은 시절부터 즐겨 연주하던 대표적인 곡으로, 올해 음반 발매가 예정되어 있다. 다채로운 음색과 폭발적인 파워로 로맨틱 스타일 피아니스트들의 계보를 잇고 있는 서혜경은 세계를 무대로 활동한 1세대 한국인 음악가로, 1980년 부조니 국제피아노콩쿠르에서 한국인 최초로 최고상을 수상하는가 하면 독일 뮌헨 ARD 국제콩쿠르에서 2위 없는 3위를 거머쥐며 국제적 명성을 얻기 시작했다. 윌리엄 페척 상 수상자로 뉴욕 데뷔 독주회를 가진 링컨센터에서 정기적으로 공연을 가졌던 서혜경은 스타인웨이 아티스트로, 카네기홀에서 열린 스타인웨이 창립 135주년 갈라콘서트에 세계 유명 피아니스트 25명 중 한 명으로 초청받은 바 있다.

연인, 친구, 가족 등 모든 세대가 공감하고 즐길 수 있는 익스트림 비보이 댄스 코미디극 '브레이크 아웃(Break Out)'은 3월 30일부터 사흘간 중극장에서 펼쳐진다. '점프'의 제작진들이 만든 또 하나의 난버벌 퍼포먼스인 '브레

이크 아웃'은 화려한 볼거리 외에도 비보이들의 풍부한 연기력과 코미디를 더해 '익스트림 댄스 코미디'라는 새로운 장르를 탄생시킨 작품으로, 자유를 꿈꾸던 어수룩한 죄수들이 비급과 함께 바깥세상으로의 탈출을 감행하면서 겪게 되는 소동을 비보이 댄스를 매개로 풀어낸 작품이다. 지난 2007년 영국 런던 웨스트엔드에서의 성공적인 런칭 공연을 시작으로, 같은 해 에든버러 프린지 페스티벌 최고의 히트 작품으로 선정됐으며 이듬해인 2008년 미국 브로드웨이에서 장기공연을 하는 등 세계무대에서도 주목 받은 바 있다.

5월에는 2017년 부조니 국제피아노콩쿠르 우승자인 피아니스트 이반 크반을 만날 수 있다. 5월 18일 열리는 '피아니스트 이반 크반 리사이틀'은 세계적인 피아노 제조회사인 스타인웨이가 국제 피아노 콩쿠르 수상자 가운데 뛰어난 수상자들을 선발해 연주기회를 제공하는 '스타인웨이 위너 콘서트'의 일환으로 마련되는 무대로, 이반 크반은 '스타인웨이 위너 콘서트 인 코리아'의 주인공으로 부산을 비롯해 서울과 인천, 대구에서 콘서트를 갖는다. 크로아티아 출신의 이반 크반은 브뤼셀에서 열린 EPTA 국제피아노콩쿠르에서 우승하며 두각을 나타냈으며, 이후 자그레브에서 열린 Virtuosi 국제 피아노콩쿠르와 엔스헤데 국제콩쿠르에서 우승, 올림 다뉴브 국제피아노콩쿠르에서는 2등을 차지했으며 2015년 젊은 크로아티아 음악인으로 선정된 바 있다.

우리에게 더없이 친숙한 뉴에이지 피아니스트인 유키 구라모토도 5월, 부산을 찾는다. 서정적이면서도 감성을 자극하는 멜로디로 각종 광고와 영화의 배경음악으로 쓰이



1



2

면서 국내 팬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유키 구라모토는 지난 1998년 첫 앨범 'Reminiscence'에서부터 2013년 'Piano Consolatio'까지 총 16장의 정규 앨범이 국내 발매되었으며, 현재 연주 음악가로서는 케니 G, 야니 등과 함께 총 100만 장이 넘는 판매 대기록을 수립하기도 했다. 1999년 예술의전당에서 가진 첫 내한공연 이후 2013년까지 매년 서울 공연 전석 매진을 기록하는 등 지금까지 한국팬들의 변치않는 사랑을 받고 있는 유키 구라모토는 5월 25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관객과 만난다.

러시아의 대표적인 관현악단인 러시아 내셔널 오케스트라는 6월 29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부산시민들과 첫 만남을 갖는다. 소련 말기였던 1990년, 피아니스트 겸 지휘자였던 미하일 플레트네프가 창단한 러시아 내셔널 오케스트라는 단원들 대다수가 소련의 주요 악단에서 재직하던 악장이나 수석/부수석급에서 발탁되면서 뛰어난 연주실력으로 해외 무대에 빠른 속도로 알려졌다. 러시아 교향악단으로는 처음으로 바티칸 교황청과 이스라엘 영토에서 연주회를 했으며, 기존의 구소련 오케스트라에서는 보기 힘든 화려하면서도 세련된 소리, 폭넓은 연주활동으로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10월 20일에는 부드럽고 섬세한 바이올린 음색의 창조자로, 프랑스를 대표하는 바이올리니스트 르노 카푸송이 오스트리아를 대표하는 챔

버 오케스트라 '카메라타 잘츠부르크'와 함께 부산을 찾는다. 지난 1952년 카라얀의 스승이자 잘츠부르크 모차르테움의 교수이며 전설적인 지휘자였던 베른하르트 파움가르트너가 창단한 카메라타 잘츠부르크는 모차르트가 태어난 잘츠부르크에서 잘츠부르크 페스티벌과 모차르트 위크에 정기적으로 출연하고 있으며 모차르트뿐만 아니라 하이든, 베토벤, 슈베르트, 그리고 낭만주의 음악부터 20세기 현대음악의 장르까지 레퍼토리의 폭을 넓혀오고 있다.

이밖에 3월, '베토벤 협주곡 전곡 시리즈'(3월 15일~17일)와 어린이들을 위한 특별한 무대 '키즈 웰컴 콘서트'(3월 23일)가, 6월에는 오페라 전곡을 대형 세트를 배제하고 콘서트 형식으로 구성, 음악적 즐거움을 선사하는 'Opera in Concert'(6월 16일)가 오랜만에 무대에 오른다. 7월에는 인디밴드인들의 축제 '인디밴드 페스티벌'(7월 23일~29일), 11월에는 화제의 연극을 만날 수 있는 '한국 연극 시리즈'(11월 10일~11일), 그리고 12월에는 연말의 즐거움을 다양한 콘서트와 뮤지컬, 무용공연으로 즐기는 '윈터페스티벌'(12월 1일~2일, 12월 15일~16일)이 펼쳐진다. 2018년 마지막 제야의 종소리를 함께 들으며 2019년 특별한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2018년 제야음악회는 올해도 12월 31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펼쳐진다.

지난해 9월, 사랑채극장으로 새롭게 탈바꿈한 소극장은 미래의 관객이 될 어린이와 가족 단위의 관람객을 위한 특화된 어린이 전용극장으로, 개관 후 개관기념공연으로 에듀테인먼트 '로보카 폴리-세가지 안전약속'을 넉달간 무대에 올리면서 많은 사랑을 받았다. 올해도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콘텐츠와 프로그램을 개발, 어린이 관객과 함께할 예정이다.

한편, 부산문화회관은 지난해 재단법인으로 출범하면서 새롭게 전시교육팀을 신설, 그동안 대관 위주의 전시에 그쳤던 전시실의 기능을 강화하면서 수준높은 기획전 준비에 박차를 가해왔다. 2018년 첫 기획전으로, 세계의 저널리즘을 이끌었던 사진잡지 '라이프'에 수록된 작품들을 엄선, 중요한 역사적 사건의 현장에서부터 평범한 일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작품을 통해 지난 세기의 역동성을 생생히 전하는 '라이프 사진전'이 1월 1일부터 개최된다. 지난 2014년 이후 3년만에 다시 부산을 찾은 이번 전시는 새로운 전시구성과 흥미와 참여를 유발할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로 관객들을 만난다.



- 1 브레이크 아웃
- 2 유키 구라모토
- 3 러시아 내셔널 오케스트라
- 4 카메라타 잘츠부르크



신년특집

부산시민회관
2018년
신년계획

2018년 부산시민회관에서 만나는 풍성한 무대

시민친화적인 프로그램으로 가깝게 다가간다

1973년 개관과 함께 45년이라는 오랜 세월을 부산시민과 함께해온 부산시민회관이 지난해 10월 1일, (재)부산문화회관과 통합, 운영되면서 (재)부산문화회관 시민회관본부(이하 부산시민회관)로 새롭게 출발했다.

그동안 부산시민들을 위한 열린 문화공간으로 많은 사랑을 받아왔던 부산시민회관은 올해 더욱더 시민들에게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시민친화적인 프로그램으로 새로운 비상을 준비하고 있다. 우선 부산시민회관은 올해부터 행사 위주의 대관공연에서 벗어나 품격있는 공연 프로그램을 유치, 다양한 장르의 공연, 전시가 열리는 공연장으로서의 기능을 확대한다.

올해부터는 해외 아티스트와 연계한 공동기획 및 협력프로그램을 개발하는가 하면 다채로운 국제행사를 유치, 시민들이 보다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풍성한 무대를 선사한다. 또, 부산문화회관에 상주하고 있는 부산시립예술단을 초청, 예술

단의 수준높은 무대를 통해 관객들을 공연장으로 불러모으는 한편, 주부문학학교, 어린이건축교실 등 주부,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낮 시간 위주의 교육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자체 도서관, 인터넷 열람부스를 설치하는 등 공연장으로서 뿐만 아니라 누구나 언제든 편하게 찾을 수 있는 문화휴식공간으로 운영한다.

그동안 별 기능을 하지 못했던 회관 앞 야외광장은 정기적인 야외공연이나 아트마켓이 열리는 문화놀이터로 조성한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10월, (재)부산문화회관과의 통합을 기념하고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개최했던 '시민회관 트락축제'는 올해 프로그램을 더욱 확대해 4월부터 매주 금요일 총 14회에 걸쳐 시민들과 만난다.

부산시민회관이 운영하는 한솔갤러리는 2018년부터 국내외 우수 작가들의 작품을 전시하는 상설전과 함께 새롭고 참신한 소재의 어린이 체험미술전, 시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획전 등을 개최한다. 우선 3월 중 '나는 덕후다'전에 이어 7월부터는 우리에게 영화로 더욱 유명한 '찰리와 초콜릿공장'의 원화작가인 세계적인 일러스트 작가 '퀸틴 블레이크'전이 열린다. 퀸틴 블레이크의 초기작부터 고전 문학작품의 삽화, 병원이나 극장, 공원 등 런던 곳곳에 숨어있는 그의 작품들과 그리고 국내 미발표작 등 다수 작품들이 전시되면서 그의 70여년간의 작품세계를 조명해볼 수 있다.

다양한 장르를 아우르는 다채로운 기획공연

1월 18일 부산시립교향악단과 함께하는 '2018 부산시민회관 신년음악회'로 관객들과 첫 만남을 갖는 부산시민회관은



1



2

2월 10일과 11일,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동명의 애니메이션과 국내에도 두터운 팬층을 확보하고 있는 일본의 유명 연주그룹 '어쿠스틱카페'와 함께하는 지브리 OST '별을 산 날'을 무대에 올린다. '별을 산 날'은 일본 스튜디오 지브리에서만 상영되고 있는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애니메이션으로, 이노우에 나오히사의 그림동화 '파스텔의 마술사'를 원작으로 한,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이 가장 아끼는 단편 애니메이션 중 하나이다. 매력적인 스토리와 영상이 돋보이는 작품으로, 특히 어쿠스틱카페의 리더인 츠루 노리히로가 음악감독을 맡은 OST는 작품을 더욱 신비롭고 인상 깊게 한다.

3월에는 가수 이문세의 히트곡을 작곡한 故 이영훈 작곡가의 노래로 채운 주크박스 뮤지컬 '광화문연가'가 부산을 찾는다. 지난 2011년 초연된 후 많은 사랑을 받아온 '광화문연가'는 지난 1980~90년대 격변의 시기 그때 그 시절의 추억, 아련한 첫사랑, 순수하고 아름다웠던 사랑과 이별 이야기를 담은 작품으로 '옛사랑', '붉은 노을', '가로수 그늘 아래 서면', '광화문연가' 등 이영훈 작곡가가 쓴 주옥같은 곡들이 담겨져 있다.

'아시아의 피나 바우슈'란 찬사를 받는 현대무용가 안은미는 일명 '할머니 막춤'으로 불리는 '조상님께 바치는 댄스'로 6월 중 부산을 찾는다. 춤을 배워 본 적 없는 평범한 할머니들을 작품에 등장시켜 삶과 예술 그리고 무대와 관객의 경계를 허무는 특별한 무대 '조상님께 바치는 댄스'는 지난 2011년 국내에서 초연된 후 2014년부터는 프랑스 파리를 시작으로 유럽 각지에서 공연되어 선풍적인 인기를 끈 바 있다.

6월 중에는 제53회 동아연극상 작품상, 한국연극평론가협회 선정 '2016 올해의 연극베스트3', 월간 <한국연극> 선정 '2016 올해의 공연베스트7'에 이름을 올린 2016년 최고의 화제작 '모든 군인은 불쌍하다'가 무대에 오른다. 2017년 대한민국 경남, 1945년 일본 오키나와,

2004년 이라크 팔루자, 2010년 한국 서해 백령도 등 서로 다른 시대와 공간을 배경으로, 그 속에서 오늘날 젊은 탈영병과 일제 말기 일본 가미카제 특공대가 된 조선인, 이라크에서 미군 식품업체에 배달하다 납치된 평범한 선교사, 서해에서 선박 침몰로 목숨을 잃은 사람들을 통해 군대와 전쟁, 국가와 거대담론 아래 가려졌던 세상 모든 군인들의 반복되는 불행한 죽음을 그려낸다.

이밖에 7월 중에는 해외 아동극 초청공연(캐나다, 슬로베니아)이, 11월 중에는 제5회 부산직장인밴드 경연대회가 펼쳐진다. 지난해부터 부산시민회관 기획공연으로 마련되고 있는 '부산직장인밴드 경연대회'는 부산, 울산, 경남지역의 순수 아마추어 직장인밴드를 대상으로 열리는 대회로, 그동안 5회를 거치면서 최고 실력자들의 등용문이 되어오고 있다.

2018년 올 한 해 부산시립예술단도 부산문화회관을 벗어나 부산시민회관에서 시민들과 만난다. 1월 18일 '2018 부산시민회관 신년음악회' 무대에 서는 부산시립교향악단은 이어서 5월 16일과 9월 5일 세 차례 부산시민회관을 찾는다. 부산시립무용단은 3월 8일과 9일에는 '2018 우리춤 산책'으로, 4월 2일부터 13일까지는 '춤추는 동화'로 부산시민회관 소극장 무대에 오른다. '2018 우리춤 산책'은 평소 끊임없이 우리춤을 연마해온 단원들의 갈고닦은 전통 춤사위를 감상할 수 있으며, 어린이들을 위한 맞춤공연 '춤추는 동화'는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구성과 안무로 매년 매진사례를 낳고 있다. 이밖에 부산시립극단은 3월 19일부터 24일까지 제61회 정기공연 '맥베드'로,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은 7월 4일 특별연주회 '교과서 음악회', 9월 15일 제152회 정기연주회로 두 차례 부산시민회관을 찾는다.

- 1 별을 산 날
- 2 광화문연가
- 3 모든 군인은 불쌍하다
- 4 부산직장인밴드 경연대회



3



4



전용교육실에서 펼쳐지는 품격높은 강의

2018년 부산문화회관 문화예술 아카데미

지난 한 해 부산문화회관만의 차별화된 강의로 부산시민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던 '부산문화회관 문화예술 아카데미'가 2018년 아카데미를 위한 전용교육실 마련으로 보다 더 쾌적한 환경에서 시민들을 만나다.

지난해 11월, 중국장 리모델링 공사가 마무리되면서 중국장 지하에 새롭게 생긴 아카데미 전용교육실은 연습실과 레슨실, 강의실로 구분되며 각 공간에는 방음시설이 완비되면서 수강생들이 보다 전문적인 환경에서 수업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부산문화회관에서는 2018년 시설 개선과 더불어 고품격 실기강좌와 부산문화회관만의 차별화된 인문학 및 교양 강좌로 시민들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다가간다.

우선 수준 높은 실력을 갖춘 부산시립예술단 단원들이 강사로 포진된 실기강좌는 그동안 여타 강좌와는 비교될 수 없는 전문연주자들의 차별화된 강좌로 인기가 많았다. 특히 지난해 기존의 클라리넷, 가야금, 해금, 클래식기타, 사물놀이 에 이어 수강생들의 요청이 많았던 바이올린, 한국무용이 추가됐으며, 올해 1분기 강좌부터는 최근 새로운 문화트렌드로 떠오른 발레를 직접 배워볼 수 있는 '성인들을 위한 발레 강좌'가 마련된다. 한국무용 강좌는 입문반 과정인 '한국무용 기초반'이 새롭게 신설되며, 중급 수준 이상의 작품반으로는 '황무병류 산조춤'과 '신명 쇄너설춤'이 개설된다. 이 밖에 발레를 제외한 모든 강좌는 수준별로 반을 나누어 강의를 진행하면서 보다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다.

지난해부터 새롭게 시작된 인문학 강좌는 더욱 전문화되고 다양해진다. 매 분기 열혈 수강생들을 늘려가고 있는 '유혁준의 음악이야기'와 '나만의 드로잉 그로잉', '소설가와 함께하는 나만의 글쓰기', '하이퀄리티를 위한 사진학', 'Artistic Fantastic 미술사'는 올해도 계속된다. 귀로 듣고 눈으로 보는 입체적인 명강의 '유혁준의 음악이야기'는 과거 경인방송 클래식전문 PD로 활동했던 유혁준이 진행하는 강좌로, 특히 고음질 하이엔드 오디오시스템과 초고화질 블루레이 영상으로 만나는 세계 최고 수준의 공연실황은 '소리'가 아닌 진정한 '음악'의 세계를 경험하게 해준다.

지난해 4분기 강좌에서 처음 개설된 김은주 작가의 '나만의 드로잉 그로잉' 강좌는 일반적인 주입식 미술 실기수업이 아닌 김은주 강사 고유의 넛지(nudge) 교육법으로 무궁무진한 드로잉의 세계로 안내한다. 소설가 김가경이 진행하는 '소설가와 함께하는 나만의 글쓰기'는 자신만의 글쓰기를 할 수 있는 단단한 기반을 마련해주며, 뿌리아 김 강사와 함께하는 '하이퀄리티를 위한 사진학'은 포트폴리오반을 추가 개설, 보다 전문적이고 심화된 미학적인 사진 수업을 들을 수 있다.

미술사의 연대기를 따라 수업하는 전통미술사 수업인 'Artistic Fantastic 미술사'는 지난해 현대미술사에 이어 올해는 고전미술사로 이어진다. 또, 강좌를 맡고 있는 미술 비평가 장원은 'Artistic Fantastic 미술사'와 함께 어느 누구도 발견하지 못한 톡톡 튀는 주제를 모아 마련한 신규강좌 '원더풀 컬러풀 미술사'로 매주 목요일 수강생들과 만난다. '원더풀 컬러풀 미술사'와 함께 올해 새롭게 신설된 강좌는 지난해 '오페라 명작 속으로'를 진행한 김상헌 강사의 강좌 '클래식의 기원을 찾아서'로, 낭만에서 고전으로 다시 바로크까지 이어지는 클래식의 기원에 대해 알아본다.



2018년도 1분기 문화예술아카데미

수강생 모집

수강신청 12.18(월)부터 선착순 마감

www.bscc.or.kr (아카데미) 강좌안내 및 접수 > 2018년 1분기) · 전시교육팀 051)607-6061~3

인문학 · 교양		정원	기간	시간	횟수	장소	수강료(원)
나만의 드로잉 그로잉	초급	15	1.8 - 3.12 (매주 월)	10:30 - 12:30	10	강의실	150,000
	응용	15	1.8 - 3.12 (매주 월)	14:00 - 16:00	10	강의실	150,000
클래식의 기원을 찾아서 "낭만에서 고전으로 다시 바로크까지"		30	1.8 - 3.12 (매주 월)	14:00 - 16:00	10	컨퍼런스홀	180,000
소설가와 함께하는 나만의 글쓰기		30	1.9 - 3.13 (매주 화)	10:00 - 12:00	10	강의실	120,000
유혁준의 음악이야기		30	1.9 - 3.13 (매주 화)	14:30 - 16:30	10	컨퍼런스홀	180,000
원더풀 컬러풀 미술사 : 소재와 매체		30	1.4 - 3.22 (매주 목)	14:00 - 16:00	10	강의실	120,000
Artistic Fantastic 미술사 : 고전미술사		30	1.6 - 3.17 (매주 토)	14:00 - 16:00	10	강의실	120,000
하이퀄리티를 위한 사진학	포트폴리오	20	1.6 - 3.17 (매주 토)	10:00 - 12:00	10	강의실	150,000
	초급	20	1.6 - 3.17 (매주 토)	15:00 - 17:00	10	강의실	120,000

실기(음악 · 무용)		정원	기간	시간	횟수	장소	수강료(원)
성인들을 위한 발레강좌		25	1.5 - 3.16 (매주 금)	14:00 - 15:00	10	연습실	100,000
한국무용	기초반	25	1.10 - 3.14 (매주 수)	14:00 - 15:10	10	연습실	100,000
	작품반(황무봉류 산조춤)	25	1.10 - 3.14 (매주 수)	15:30 - 16:50	10	연습실	100,000
	작품반(신명 쇄너설춤)	25	1.9 - 3.13 (매주 화)	15:30 - 16:50	10	연습실	100,000
바이올린	A	12	1.8 - 3.12 (매주 월)	17:30 - 19:00	10	레슨실	120,000
	B	12	1.8 - 3.12 (매주 월)	19:30 - 21:00	10	레슨실	120,000
가야금	중급	12	1.9 - 3.13 (매주 화)	17:30 - 19:00	10	레슨실	140,000
	초급	12	1.9 - 3.13 (매주 화)	19:30 - 21:00	10	레슨실	140,000
사물놀이	초급	12	1.9 - 3.13 (매주 화)	17:30 - 19:00	10	연습실	120,000
	중급	12	1.9 - 3.13 (매주 화)	19:30 - 21:00	10	연습실	120,000
클라리넷	A	8	1.10 - 3.14 (매주 수)	17:30 - 19:00	10	레슨실	120,000
	B	8	1.10 - 3.14 (매주 수)	19:30 - 21:00	10	레슨실	120,000
해금	초급	12	1.4 - 3.22 (매주 목)	17:30 - 19:00	10	레슨실	120,000
	중급	12	1.4 - 3.22 (매주 목)	19:30 - 21:00	10	레슨실	120,000
클래식기타	중급	15	1.5 - 3.16 (매주 금)	14:00 - 15:30	10	레슨실	120,000
	초급	15	1.5 - 3.16 (매주 금)	16:00 - 17:30	10	레슨실	120,000

지난 한 해 동안 부산시립예술단을 아껴주신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새해에도 품격높은 문화도시 부산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018

교향악단 | 합창단 | 무용단

국악관현악단 | 극단

소년소녀합창단 | 청소년교향악단



다양한 주제와 테마로 마련하는 최고의 무대

불과 서른다섯의 나이로 서울시립교향악단 부지휘자에 올라 '포스트 정명훈'을 대표하는 신예로 많은 주목을 받았던 최수열 지휘자는 30대 지휘자다운 젊은 패기와 탁월한 실력으로 한동안 정체되어 있던 부산시립교향악단에 새로운 기운을 불어넣고 있다.

현대음악의 스페셜리스트로 꼽히는 최수열 지휘자는 지난해 취임 후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교향시 전곡을 소개하는 '2018-2019 슈트라우스 교향시 전곡 시리즈'로 관객과 만나고 있다. 올해도 슈트라우스 교향시와의 만남은 계속되는데 그림자없는 여인, 교향적 환상곡(2월 8일, 제537회 정기), 가정교향곡(4월 11일, 제539회 정기), 돈키호테(6월 8일, 제541회 정기), 네 개의 마지막 노래, 죽음의 정화(9월 7일, 제543회 정기), 영웅의 생애(10월 19일, 제544회 정기) 등 모두 다섯 차례 정기연주회를 통해 관객과 만난다. 특히 올해는 연주회별로 다양한 나라의 작곡가, 다양한 악기를 만날 수 있으며, 각 계절과 작품에 맞는 테마를 부제로 선정, 관객들에게 보다 가깝게 다가간다.

대표적인 브런치 콘서트인 '마티네 콘서트'는 낮 시간이 자유롭거나 저녁시간을 내기 어려운 관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연으로, 올해는 3월 28일 첫 공연을 시작으로 4월 25일, 5월 25일, 8월 29일, 10월 31일, 11월 28일 등 6차례 진행된다. 여름방학 기간인 8월 17일에는 부산시립교향악단의 대표적인 간판프로그램인 '금년새와 함께하는 클래식은 내친구'가 펼쳐지며, 이밖에 청소년 유망주 발굴을 위한

'2017년 제야음악회'로 지난 한 해를 마무리했던 부산시립교향악단은 지난해 10월, 공식이던 부산시립교향악단 상임지휘자에 최수열 지휘자가 임명되면서 올 한 해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제73회 청소년 협주곡의 밤(9월 20일)', 베토벤 교향곡 제9번 '합창'과 함께하는 '2018 송년음악회(12월 21일)', 그리고 12월 31일 한 해를 보내는 아쉬움과 새해를 맞이하는 설렘을 나누는 '2018 제야음악회'도 2018년 변함없이 이어진다.

부산시립교향악단은 올 한 해 (재)부산문화회관에 새롭게 통합된 부산 시민회관을 알리고 보다 다양한 지역의 관객을 만나기 위해 1월 18일 '부산시민회관 신년음악회'를 시작으로 5월 16일, 9월 5일 3차례 부산시민회관에서 연주를 가진다. 3월 2일에는 일본 가나자와에서 열리는 '동아시아 문화도시 개막식 축하공연'에 참가, 부산을 대표하는 문화사절단으로서 부산을 알리며, 이밖에 전국의 교향악단이 펼치는 '2018 교향악축제(4월 13일, 서울 예술의전당)'를 비롯해 통영국제음악당 등 타 지역 공연을 통해 부산시립교향악단의 위상을 알려나간다. 특히 서울시립교향악단 부지휘자로 있으며 리허설용 콘서트, 창고음악회, 음악극장 등 새로운 컨셉의 콘서트를 진행, 관객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던 최수열 지휘자는 올해 관객과 소통할 수 있는 특별한 무대로 시민들과 만날 예정이다.

한편, 올 한 해 모두 11차례 정기연주회의 프로그램과 라인업을 발표한 부산시립교향악단은 1월, 전 연주회 티켓 예매에 들어간다. 1월 10일부터 상반기 공연(2월~6월)에 이어 17일부터는 하반기 공연(7월~12월)까지 모든 정기연주회의 티켓을 예매할 수 있다.



합창의 즐거움을 선사하는 특별한 무대

1월, 중국 하얼빈에서 열리는 '동아시아 문화도시 개막식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2018년을 힘차게 출발하는 부산시립합창단은 올 한 해 4차례 정기연주회와 특별연주회, 순회연주회를 계획하고 있다.

2018년 첫 무대는 3월 2일 열리는 '신춘음악회'로, 섬세하고 세련된 합창음악을 선보이는 울산시립합창단 민인기 수석지휘자의 객원지휘로 '봄'을 테마로 한 다양한 솔로와 합창음악으로 꾸며진다. 4월 5일에는 '음식'을 주제로 한 특별한 무대로 관객과 만난다. 바흐의 커피 CM 송으로 유명한 '칸타타 BWV 21'을 비롯해 세계의 음식을 소재로 한 다양한 합창음악을 선사한다. 일명 커피칸타타라고도 불리는 '칸타타 BWV 21'은 18세기 당시 커피 유행을 타고 커피하우스에서 연주된 세속칸타타로, 마치 작은 희극오페라를 공연하듯 진행되며 풍자와 익살로 가득해 웃음을 자아낸다. 5월 24일 특별연주회에서는 지난해 큰 화제를 불러모았던 클래식 크로스오버 오디션 프로그램인 '팬텀싱어'에서 모티브를 가져와 부산시립합창단 단원들로 구성된 앙상블 팀이 특별한 무대를 선사한다.

매년 6월, 호국보훈의 달을 기념해 유명 작곡가들의 레퀴엠을 연주했던 부산시립합창단은 올해는 6월 21일 브람스의 '독일 레퀴엠'으로 무대에 선다. 브람스가 장장 10년이 넘는 세월을 걸쳐 심혈을 기울여 탄생시킨 '독일 레퀴엠'은 기존 레퀴엠과는 다른 사랑하는 이를 잃은, 남겨진 자들에 대한 동정과 따뜻한 위로가 담겨있다. 또, 청중들과 함께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는 '2018 해맞이 부산축제'로 2018년 무술년을 힘차게 출발하는 부산시립합창단은 올해도 정통적인 합창음악을 만날 수 있는 정기연주회와 합창의 즐거움을 선사하는 특별 기획 연주회로 청중들과 만날 예정이다.

즐거는 '콘서트형 프로그램'으로, 매년 관객들의 많은 사랑을 받아온 '7080 가요합창'은 올해는 7월 26일 펼쳐진다. 지난 가요계를 대표했던 가수들을 중심으로 추억과 감동이 있는 무대로, 올해는 가수 김동률, 이적의 프로젝트 그룹인 '카니발'의 노래로 꾸며진다. 지난 1997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발매한 그들의 음반 'Carnival'에는 타이틀곡인 '그땐 그랬지'를 비롯해 훗날 가수 인순이가 리메이크해서 유명해진 '거위의 꿈' 등 10곡이 수록되어 있다. 가을의 길목인 9월 6일에는 재즈밴드와 함께하는 미사곡, 재즈음악으로 가을의 감성이 묻어나는 감미로운 합창 무대로 꾸며진다. 부산지역 아마추어 합창단들과 함께하는 '부산합창제'는 10월 24일부터 사흘간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펼쳐지며, 11월 23일과 24일 부산시민회관 대극장에서는 지난해 첫 선을 보여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뮤지컬 '레미제라블' 갈라콘서트가 다시 한 번 관객들을 찾는다. '레미제라블' 갈라콘서트는 뮤지컬, 영화로 널리 알려진 주옥같은 넘버를 합창곡으로 편곡, 오케스트라 반주로 들려주면서 관객들로부터 많은 박수를 받았다. 12월 21일 정기연주회에서는 부산시립교향악단과 함께 대표적인 송년무대로 자리잡은 '베토벤 교향곡 9번 합창'으로 2018년을 마무리한다.

부산시립합창단은 2018년에는 관객들을 직접 찾아가 음악으로 소통하는 '찾아가는 음악회'를 더욱 활발히 진행한다. 병원, 양로원 등 소외된 이웃을 찾아가 음악으로 사랑을 전하는 한편, 부산지역 초·중등학교를 찾아가 교과서음악회로 합창의 즐거움을 선사한다.



21세기 춤 예술이 요구하는 다양한 무대 선사

“지난 2017년은 두 차례 정기공연을 통해 전통과 현대, 무거움과 가벼움의 경계와 영역을 넘나든 한 해였습니다. 같음과 다름의 미학을 이질적이나 경이로운 춤 미학으로 상승시킨 작품 ‘춤, 인상’, 그리고 부산 출신의 현대무용 전공자와 부산시립무용단과의 협업을 통해 지역 춤 창작과 대중화에 기여한 ‘댄스 포스’는 부산시립무용단만의 색깔을 알리는 데 기여했다고 봅니다.”

부산시립무용단은 1월, 중국 하얼빈에서 열리는 ‘동아시아 문화도시 개막식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2018년을 힘차게 출발한다. 국내에서는 1월 17일 단원들의 창작 열정을 만날 수 있는 안무가 양성 프로젝트 ‘몸으로 쓰는 시’를 통해 처음 관객과 만난다. ‘몸으로 쓰는 시’는 부산의 여름을 빛내는 창작춤 무대로 지난해 8월 열릴 예정이었으나 공연장소인 중극장이 리모델링 공사에 들어가면서 올해 첫 무대로 마련됐다. 단원 김시현의 ‘롱 타임 노 씨’, 이용진 ‘사자후(who)’, 장영진&박미나의 ‘두 사람’, 이현주 ‘칠구년 시월생’, 남도욱의 ‘르쌍스 Re-ssance’ 등 다섯 작품이 무대에 오른다. ‘2018 몸으로 쓰는 시’ 무대는 오는 8월 23일과 24일 이틀간 펼쳐진다.

우리춤을 연마해온 단원들이 그동안 갈고닦은 전통 춤사위를 선보이는 ‘우리춤 산책’은 3월 8일과 9일 이틀간 열린다. ‘우리춤 산책’은 우리춤에 대한 진지함과 열정이 묻어나는 무대로, 다채로운 우리춤을 한자리에서 즐길 수 있다. 4월에는 매년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구성과 안

지난 한 해 한국춤의 전통을 계승하며 그 속에서 현대성, 다양성, 대중성 등 현대예술이 요구하는 다양한 무대를 선보여온 부산시립무용단은 2018년 새해에도 21세기 춤 예술이 요구하는 변용과 확장을 통해 지역사회 위상 강화와 시민 문화 향유에 적극 노력해나갈 계획이다.

무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춤추는 동화(4월 2일~13일)’가 무대에 오른다. 또, 매년 여름밤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야외공연인 ‘여름마당 춤 축제(7월 19일~20일)’는 시민과 함께하는 시민 참여 춤 축제로, 해가 거듭될수록 시민들의 큰 사랑을 받고 있다.

매년 실험적이고 창의적인, 수준 높은 창작무대를 만날 수 있었던 정기공연은 5월과 11월 두차례 무대에 오른다. 봄 정기공연으로 무대에 오르는 ‘댄스 유토피아(Dance Utopia, 5월 31일~6월 1일)’는 관객 친화형 공연으로 일반 관객들에게 친숙한 영화, 드라마 OST, 대중가요, 민요와의 접목을 시도, 다양한 오브제 활용과 변신으로 춤 미학을 선사한다. 11월 21일과 22일 이틀간 열리는 가을 정기공연은 부산시립무용단의 레퍼토리화에 집중한다. 지난 2016년 정기공연으로 선보여 평단과 관객으로부터 호평을 받았던 ‘업경대’를 새롭게 무대에 올린다. 이번 새로운 버전의 ‘업경대 U’는 삶의 문제를 진중하게 다루되 현대적인 춤 메소드와 극장주의적 환상성을 극대화함으로써 판타지 묘미를 강화한다.

이밖에 문화 소외지역을 찾아가는 복지관 순회공연, 구 문화예술화관 순회공연, 청소년을 위한 특별공연, 장애우들과 함께하는 사랑나눔 송년공연 역시 2018년에도 변함없이 진행된다.



타 장르와 어우러지는 특별한 무대 선사

지난 한 해 새로운 연주, 새로운 형식의 무대를 통해 관객들에게 가깝게 다가갔던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은 올해도 우리 국악의 멋과 신명을 전할 수 있는 다양한 무대로 관객과 만난다.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은 2018년 올해는 지난 한 해 추진해왔던 사업들을 확장시키고 공연마다 프로그램을 차별화시켜 관객맞춤 공연으로 시민들에게 다가갈 예정이다. 새봄의 시작을 알리는 신춘음악회(3월 22일)를 시작으로 무더운 여름의 열기를 식혀줄 기획공연 '팔빙수 같이 시원한 음악회'(8월 17일), 미래 국악도들을 위한 청소년 협연의 밤(9월 28일), 아시아의 관문 부산을 기점으로 아시아의 전통음악을 교류하는 '아시아 민족음악의 밤'(10월 25일), 한복의 아름다움과 품격있는 전통음악이 만나 특별한 즐거움을 선사하는 '美&樂 페스티벌'(11월 22일), 한 해를 마무리하는 송년 음악회(12월 20일)까지 풍성한 무대를 준비하고 있다. 특히 '아시아 민족음악의 밤'과 '美&樂 페스티벌'은 해를 거듭하며 관객들로부터 많은 호평을 받으면서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만의 특화된 브랜드 공연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또 지난해 12월, 2017 부산 브랜드 콘텐츠로 선정된 극단 바다와 문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창작극 '정과정(鄭瓜亭)' 제작에 참여했던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은 '정과정'을 소재로 부산의 역사와 전통을 예술적으로 재조명하면서 연극과 음악, 미디어 파사드를 결합한 새로운 무대연출로 많은 박수를 받았다.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에서는 올 한 해에도 부산의 자

“지난 한 해는 객석 점유율이 90%를 웃돌면서 명실상부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이 부산시민들과 더욱 가까워진 한 해였다고 봅니다. 2018년에도 부산시민들을 위한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 명소, 문화를 소재로 한 다양한 작품을 구상, 무대에 올리며 詩 음악회, 국악뮤지컬 등 타 장르와 어우러지는 색다른 무대로 관객과 만날 예정이다.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은 지난 한 해 평창동계올림픽 D-1주년 성황봉송 기념무대, 수영어방축제, 김해가야금페스티벌, 부산마루 국제음악제, 부산시민공원 개장 3주년 공연, 조선통신사 등재 기념공연 등 부산문화회관을 벗어나 다양한 장소, 다양한 주제로 관객과 만나며 대외적으로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을 알려왔다. 올해도 시립예술단으로서의 공적인 역할을 다하기 위해 지역 區 문화회관 순회공연을 비롯해 찾아가는 공연 횟수를 늘림으로써 시민에게 보다 더 가깝게 다가갈 계획이다. 또, 2018년 새해를 앞두고 지난해 12월, 독일 함부르크 '한국의 날' 축제에 참가, 문화사절단으로 부산의 위상을 드높였던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은 2018년 올해도 LA한인축제, 카자흐스탄 민족음악축제 등 해외공연을 추진, 우리 전통문화의 멋과 신명을 전 세계에 알려나갈 예정이다.

그동안 (사)문화복지 공감, 부산어깨동무 나눔봉사단, 사회봉사단체 나누미인 등과 문화복지 실현을 위한 MOU를 체결하면서 문화나눔소사이터티를 결성, 소외계층에 대한 문화나눔을 실천해온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은 2018년에도 뜻을 같이 하는 지역단체와의 MOU체결을 통해 문화나눔사랑을 확대시켜 나갈 계획이다.



혁신과 소통을 통한 새로운 20주년을 준비

“부산이라는 지역성, 시립이라는 공공성, 그리고 극단이라는 예술성까지 부산시립극단이라는 그 이름 속에 극단의 역할과 책임이 모두 담겨져 있다고 봅니다.”

창단 20주년을 맞는 2018년 부산시립극단, 나아가 부산연극의 새로운 미래를 고민하고 있는 객종필 예술감독은 올 한 해 세 차례 정기공연을 통해 창단 20주년을 기념하는 축하의 장을 마련한다. 특히 다양한 관객층을 배려한 작품을 선정, 3월 첫 정기공연에서는 2~30대층 젊은 관객들을 겨냥한 연극 ‘맥베드’를, 7월에는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창작 뮤지컬 ‘상사화’, 그리고 12월에는 작품성과 대중성을 인정받은 문재작 ‘왕의 남자 이(爾)’를 선보인다. 3월 19일부터 24일까지 부산시민회관에서 열리는 연극 ‘맥베드’는 극단 자유바다 예술감독으로 있는 정경환의 연출로, 셰익스피어 고전을 현대적으로 조명해본다. 창작뮤지컬 ‘상사화’는 지난해 ‘에든버러 페스티벌’에까지 진출해 호평을 받았던 ‘몽키댄스’의 연출자 변진호의 신선한 연출이 기대되는 작품으로, 7월 19일부터 21일까지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에서 펼쳐진다. ‘상사화’는 7월 중 경주에서 열리는 국공립극단 페스티벌 무대에도 오를 예정이다. 창단 20주년을 기념하는 마지막 작품은 객종필 예술감독의 연출로 무대에 오르는 ‘왕의 남자 이(爾)’로, 객종필 예술감독이 지난 2002년, 제20회 전국연극제에 대상인 대통령상과 연출상을 수상한 작품이다. ‘왕의 남자 이(爾)’는 영화 ‘왕의 남자’로 더욱 유명해진 작품으로, 연산군의 눈에 들어 낫은 신분인 천민에서 희락원 종4품이라는

“창단 20주년을 맞는 올해는 부산시립극단의 새로운 20년을 준비한다는 각오로 열심히 뛰겠습니다.” 부산시립극단은 2018년 올 한 해, 그동안 ‘혁신과 소통’을 통해 이끌어냈던 변화를 바탕으로 부산시립극단의 새로운 미래의 좌표를 제시할 예정이다.

지위까지 오른 궁중 광대 ‘공길’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2018년 첫 무대는 2월 8일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에서 열리는 강원도립극단과의 교류공연 ‘메밀꽃 필 무렵’. 매년 타 지역 시립극단과의 교류공연을 통해 지역성에 벗어나 다양한 무대를 선사해왔던 부산시립극단이 올해는 2018 평창올림픽 성공을 기원하며 마련한 무대로, 강원도립극단의 부산 무대에 이어 부산시립극단은 4월 3일, 춘천문화예술회관에서 연극 ‘아비’로 춘천 관객들과 만난다. 부산시립극단이 지난 2016년부터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선사하고 있는 ‘어린이 연극체험 페스티벌’은 폭발적인 성원에 힘입어 올해도 계속된다. ‘어린이 연극체험 페스티벌’은 맞춤형 공연에서부터 다양한 문화예술체험까지 보다 풍성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며, 특히 행사기간 동안 매번 매진사례를 낳았던 인형극 공연은 기존 사랑채극장에서 객석수가 더 많은 챔버홀로 장소를 옮겨 진행된다.

평소 거리상으로 멀어 부산문화회관을 찾기 힘들었던 타 지역주민들을 위해 을숙도문화회관, 해운대문화회관에서 정기공연을 가지기도 했던 부산시립극단은 특히 지난해 문화 소외지역을 찾아가는 ‘찾아가는 공연’을 펼치면서 시민들과 더욱 가까워졌다는 호평을 받았다. 올해는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고전 ‘배비장전’으로 시민들을 직접 찾아가 소통한다.



최고의 소년소녀합창단으로 세계로 나아가며 도약하는 해

특히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은 올해 5월 12일, 외교부 초청으로 에스토니아 수도 탈린에서 열리는 에스토니아 독립 100주년 기념무대에 한국을 대표하는 사절단으로 참가, 에스토니아를 대표하는 탈린 오케스트라와 함께 무대에 선다. '에스토니아에서는 세 사람만 모여도 서로 화음을 넣어서 합창을 할 수 있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노래하는 민족', '합창의 나라'로 유명한 만큼, 한국을 대표하는 합창단으로 최고의 무대를 선사할 예정이다.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은 에스토니아 공연에 앞서 5월 10일 제151회 정기연주회를 통해 에스토니아, 핀란드 등 북유럽 합창음악을 소개하는 출국연주회를 갖는다.

2018년 첫 무대는 2월 24일 인도네시아 마나도 주립대합창단 (UNIMA Choir)과 함께하는 특별연주회 'Friendly Concert'로 마련된다. 인도네시아가 자랑하는 인도네시아 마나도 주립대합창단은 그동안 다양한 세계무대에서 아시아 합창음악의 저력을 과시해왔다. 7월 14일에는 초등학생들을 위한 특별한 무대 '교과서 음악여행'을 진행한다. 주 관객층인 어린이들에게 보다 가깝게 다가가기 위한 무대로, 교과서에 수록된 동요, 합창음악으로 어린이 관객들과 하나되는 즐거운 시간을 갖는다.

지난해 창작동요의 활성화를 위해 동요사랑회를 초청, 다양한 창작동요를 소개했던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은 올해도 동요사랑회 작곡가들과 함께 창작동요의 밤을 마련한다. 9월 12일 열리는 이번

지난해 '2017년 발리국제합창페스티벌'에서 6개상을 휩쓸며 다시 한 번 최고의 합창단으로 그 실력을 인정받았던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은 2018년을 세계로 나아가며 도약하는 해로 삼고 그 어느 때보다 남다른 각오로 2018년 새해를 맞고 있다.

무대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동요사랑회 작곡가들의 신작동요로 꾸며지며, 부산문화회관이 아닌 부산시민회관에서 관객들과 만난다. 동요사랑회는 지난 1994년 창립된 후 아름다운 동심을 노래하는 창작동요를 작곡, 보급해왔으며 현재는 부산을 비롯해 경남, 제주, 충북, 강원, 서울 등 전국의 동요 창작자들이 매년 30여 편의 창작동요를 발표하면서 음반과 창작 작곡집을 발간해오고 있다. 지난 2014년부터 매년 '독도의 날'인 10월 25일 펼쳐지는 '독도이야기'에서는 독도를 주제로 한 다양한 음악을 통해 독도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고 우리 역사의 소중함을 노래로 들려준다. 2018년의 마지막 무대는 온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크리스마스 콘서트 '해피 크리스마스'로, 성탄절인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뮤지컬로 특별한 무대를 선사한다.

8월에는 전국의 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 참가한 가운데 안양에서 열리는 '제26회 전국시립소년소녀합창제'에 참가한다. 지난해 통영에서 열린 '제25회 전국시립소년소녀합창제'에서 아카펠라 곡으로 관객들의 찬사를 받았던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은 올해 역시 수준높은 곡으로 좋은 무대를 선사할 예정이다. 또, 11월 17일에는 청소년 합창문화의 발전과 합창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해 매년 개최해온 '제32회 부산청소년합창제'가 열린다. 부산지역 초중고 합창단들의 축제의 장으로 성장시키는 한편, 교내 합창활동을 부활시키기 위한 합창운동을 펼쳐나갈 예정이다.



다양한 음악적 색깔로 최고의 무대 선사

“학업과 연주활동을 병행해야 하는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묵묵히 실력을 쌓아온 단원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지난 한 해 단원들의 실력 향상뿐 아니라 미래를 대비한 다양한 경험과 비전을 제시하면서 단원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을 이끌어온 김봉미 지휘자는 올해 두 차례 정기연주회와 특별연주회, 기획공연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정기연주회를 통해 다양한 시대, 다양한 작곡가들의 5번 교향곡을 선정, 바로크에서부터 고전, 낭만, 현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음악적 색깔을 보여주는 프로젝트 ‘심포니 No. 5’를 진행해왔던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은 올해도 두 차례 정기연주회를 통해 영국 작곡가 허버트 페리와 러시아 작곡가 글라주노프의 교향곡 5번을 소개한다. 허버트 페리는 20세기 초를 전후하여 영국 음악계의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중 한 명으로, 당대에는 헨리 퍼셀 이후 최고의 영국 작곡가로 평가받기도 했다. 러시아에서 차이콥스키의 뒤를 잇는 중요한 작곡가로 평가받는 글라주노프는 국민악파의 전통을 이어받아 러시아적인 웅대한 작품을 다수 발표했다. 두 작곡가의 교향곡 5번은 대중적으로는 잘 알려져 있지 않으나 숨겨진 명곡으로, 관객들에게 잊을 수 없는 특별한 무대를 선사한다. 정기연주회의 또 다른 레퍼토리는 ‘오페라’로, 도니체티 오페라 ‘사랑의 묘약’과 베르디 오페라 ‘아이디’가 각각 정기연주회를 통해 무대에 오른다.

2017년 1월,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의 새로운 수장으로 임명된 김봉미 신임 수석지휘자와 함께 지난 한 해 바쁘게 달려왔던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은 올 한 해도 최고의 무대를 선사하기 위해 전 단원들이 최상의 호흡을 맞추고 있다.

2018년 첫 무대인 제57회 정기연주회는 3월 29일 ‘사랑’이라는 테마로 펼쳐진다. 2017년 프랑스 Banque Populaire재단 아티스트로 선정되어 국제무대에서 연주 활동하는 바이올리니스트 김재원과 프랑스 파리고등음악원 교수이자 현대앙상블 ‘Ensemble Intercontemporain’ 솔리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첼리스트 에릭 마리아 쿠튀리에, 테너 전병호, 바리톤 이정근이 출연, 허버트 페리의 교향곡 제5번을 비롯해 브람스 더블협주곡, 도니체티 오페라 ‘사랑의 묘약’ 아리아 등을 들려준다. 6월 30일 오디션을 거쳐 선발된 단원들에게 협연의 기회를 제공하는 ‘2018 솔로이스츠들의 축제’에 이어 9월 11일 제58회 정기연주회에서는 글라주노프의 교향곡 제5번, 베르디 오페라 ‘아이디’로 관객과 만나며 12월 18일 ‘2018 송년음악회’로 송년의 아쉬움을 달래며 2018년을 마무리한다.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은 지난 한 해 부산문화회관 챔버홀 개관 페스티벌, 호치민-경주 세계문화엑스포 초청 특별음악회, 한국·베트남 수교 25주년 기념 특별음악회 등 외부행사를 통해 한국의 대표적인 청소년교향악단으로서의 그 실력을 인정받았다. 4월 12일 부산문화회관에서 열리는 ‘동아시아 문화도시 부산 개막식’에 참가하는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은 올해도 다양한 외부 공연과 함께 ‘찾아가는 공연’을 통해 관객과 직접 만날 예정이다.

		1월	2월	3월	4월	5월	
민화회관	대극장	기획	1/7(일) 피아니스트 조성진 리사이틀	2/24(토) 유럽 신인 오페라 갈라 콘서트 2/25(일) 유럽의 거장들과 함께하는 실내악의 밤	3/15(목)-17(토) 베토벤 협주곡 전곡 시리즈 3/23(금) 키즈 웰컴 콘서트 3/24(토) 베토벤 심포니 사이클 VI 3/28(수) 마티네 콘서트 3/31(토) 노자와 베토벤	4/7(토)-8(일) 뮤지컬(미정) 4/21(토) 베토벤 심포니 사이클 VII 4/25(수) 마티네 콘서트	5/25(금) 마티네 콘서트 유기 구라모토 콘서트
		예술단	1/19(금) 교향 2018 신년 음악회(536회 정기) 1/31(수) 국악 2018 신년 음악회(특별)	2/8(목) 교향(537회 정기)	3/2(금) 합창(170회 정기) 3/9(금) 교향(538회 정기) 3/22(목) 국악(195회 정기) 3/29(목) 청소년교향(57회 정기)	4/11(수) 교향(539회 정기) 4/26(목) 국악(196회 정기)	5/18(금) 교향(540회 정기) 5/24(목) 합창(특별) 5/31(목)-6/1(금) 무용(78회 정기)
	중극장	기획		2/27(화) 서해경 피아노 리사이틀	3/30(금)-4/1(일) 익스트림 댄스 코메디극 '브레이크아웃'	4/13(금) 그레이트 챔버 시리즈	
		예술단	1/17(수) 무용 안무가 양성 프로젝트(특별) 1/31(수) 국악 2018 신년 음악회(특별)	2/8(목) 극단 2018 평창올림픽 성공기원 부산-강원도 립극단 교류공연 2/24(토) 소년소녀(특별)		4/5(목) 합창(특별)	5/10(목) 소년소녀 (151회 정기)
	천포홀	기획					5/18(금) 피아니스트 이반 크반 리사이틀
		예술단					5/4(금)-6(일) 극단(특별)
	야외마당						5/4(금)-6(일) 극단 어린이연극 체험페스티벌(특별)
	전시실	1/1(월)-4/8(일(일)) 빛나는 시작, 눈부신 기억 '라이프 사진전'	1/1(월)-4/8(일(일)) 빛나는 시작, 눈부신 기억 '라이프 사진전'	1/1(월)-4/8(일(일)) 빛나는 시작, 눈부신 기억 '라이프 사진전'	1/1(월)-4/8(일(일)) 빛나는 시작, 눈부신 기억 '라이프 사진전'	1/1(월)-4/8(일(일)) 빛나는 시작, 눈부신 기억 '라이프 사진전'	
	시민회관	대극장	1/18(목) 2018 부산시민회관 신년음악회	2/10(토)-11(일) 지브리OST '별을 산 날' 2/8(목) 합창(특별)	3월중 뮤지컬 '광화문연가'		5/16(수) 교향
		소극장			3/8(목)-9(금) 무용 2018 우리춤 산채(특별) 3/19(월)-24(토) 극단(61회 정기)	4/2(월)-13(금) 무용 춤추는 동화(특별)	
야외마당					시민과 함께하는 시민뜨락축제(매주 금)	시민과 함께하는 시민뜨락축제(매주 금)	
전시실				3월중 '나는 덕후다'전			
지역(區) 문화회관 및 기타 공연장	1/20(토) 베토벤 심포니 사이클 IV (F1963 석천홀)		3/3(토) 베토벤 심포니 사이클 V (F1963 석천홀)			5/26(토) 베토벤 심포니 사이클 VII (F1963 석천홀)	
순회·해외공연	1/4(목) 합창 동아시아 문화도시 개막식(중국 허얼빈) 1/5(금) 무용 동아시아 문화도시 개막식(중국 허얼빈) 1/25(목)-27(토) 소년소녀 동계 합창 캠프(경북)			3/2(금) 교향악단 동아시아 문화도시 개막식 (일본 가나자와)	4/3(화) 극단 2018 평창올림픽 성공기원 부산-강원도 립극단 교류공연(춘천 문화예술회관) 4/13(금) 2018 교향악축제(서울 예술의전당)		

※이 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p>6/16(토) 오페라 in 콘서트 '돈 조반니'</p> <p>6/23(토) 노자와 베토벤</p> <p>6/29(금) 러시아 내셔널 오케스트라</p>		<p>8/29(수) 마티네 콘서트</p>		<p>10/6(토) 노자와 베토벤</p> <p>10/20(토) 카푸송&카메라타 잘츠부르크</p> <p>10/31(수) 마티네 콘서트</p> <p>10월중 대중 콘서트(미정)</p>	<p>11/28(수) 마티네 콘서트</p>	<p>12/1(토)~2(일) 윈터페스티벌 _대중/무용(미정)</p> <p>12/8(토) 노자와 베토벤</p> <p>12/15(토)~16(일) 윈터페스티벌 _뮤지컬(미정)</p> <p>12/31(월) 2018 제아음악회</p>
<p>6/8(금) 교향(541회 정기)</p> <p>6/21(목) 합창(171회 정기)</p> <p>6/30(토) 청소년교향 2018 솔로이스츠의 축제(특별)</p>	<p>7/6(금) 교향(542회 정기)</p> <p>7/26(목) 합창 가요합창연주회(특별)</p>	<p>8/17(금) 교향 클래식은 내 친구(특별)</p>	<p>9/7(금) 교향(543회 정기)</p> <p>9/11(화) 청소년교향(58회 정기)</p>	<p>10/19(금) 교향(544회 정기)</p> <p>10/24(수)~26(금) 합창 2018 부산 합창제(특별)</p> <p>10/25(목) 소년소녀(특별)</p>	<p>11/16(금) 교향(545회 정기)</p> <p>11/17(토) 제32회 부산청소년 합창제(특별)</p> <p>11/21(수)~22(목) 무용(79회 정기)</p>	<p>12/4(화) 무용 청소년을 위한 특별공연</p> <p>12/5(수) 무용 사랑나눔 송년공연</p> <p>12/21(금) 2018 송년음악회(교향 546회 정기, 합창 173회 정기)</p> <p>12/18(화) 청소년교향 2018 송년음악회(특별)</p> <p>12/20(목) 국악(199회 정기)</p> <p>12/25(화) 소년소녀(153회 정기)</p>
	<p>7/13(금) 그레이트 챔버 시리즈</p> <p>7/23(월)~29(일) 인디밴드 페스티벌</p>				<p>11/10(토)~11(일) 한국연극시리즈(미정)</p> <p>11/23(금) 그레이트 챔버 시리즈</p>	
<p>6/7(목) 국악(197회 정기)</p>	<p>7/19(목)~21(토) 극단(62회 정기)</p>	<p>8/17(금) 국악 팔빙수같이 시원한 콘서트(특별)</p>	<p>9/6(목) 합창(172회 정기)</p> <p>9/20(목) 교향 청소년 협주곡의 밤(특별)</p> <p>9/28(금) 국악 제44회 청소년 협연의 밤(특별)</p>	<p>10/25(목) 국악 아시아 민족 음악의 밤(특별)</p>	<p>11/22(목) 국악(198회 정기)</p>	<p>12/13(목)~15(토) 극단(63회 정기)</p>
		<p>8/15(수)~26(일) 부산챔버페스티벌</p>				
	<p>7/19(목)~20(금) 무용 2018 여름마당춤 축제(우천 시 대극장)</p>					
<p>6월중 연극 '모든 군인은 불쌍하다'(예정)</p> <p>6월중 인은미 무용단 '조상님께 바치는 댄스'</p>	<p>7월중 해외 아동극 초청 공연-캐나다, 슬로 베니아(예정)</p>		<p>9/5(수) 교향 소년소녀(152회 정기)</p>		<p>11/23(금)~24(토) 합창(특별)</p> <p>11월중 제5회 부산직장인 밴드 경연대회</p>	
	<p>7/4(수) 소년소녀 교과서 음악회(특별)</p>	<p>8/23(목)~24(금) 무용 2018 안무가 양성 프로젝트(특별)</p>				
			<p>시민과 함께하는 시민뜨락축제(매주 금)</p>	<p>시민과 함께하는 시민뜨락축제(매주 금)</p>		
	<p>7월~9월중 '퀸틴 블레이크'전</p>	<p>7월~9월중 '퀸틴 블레이크'전</p>	<p>7월~9월중 '퀸틴 블레이크'전</p>			<p>12월중 어린이 체험전(예정)</p>
<p>6/23(토) 베토벤 심포니 사이클 IX(F1963 석천홀)</p> <p>6월중 무용 國 문화회관 순회 공연(3회, 장소미정)</p> <p>6월중 무용 지역민을 위한 특별공연(장소미정)</p>						<p>12/6(목) 무용 사랑나눔 송년공연(해남학교)</p> <p>12월중 무용 춤으로 갈무리하다(특별, 국립부산국악원)</p>
	<p>7월중 극단 국광립극단 페스티벌(경주)</p> <p>7월중 청소년교향 2018 하계캠프(장소미정)</p>				<p>11/30(금) 합창 동아시아 문화도시 폐막식(일본 가나자와)</p>	

오페라 연출가 이의주의
백 스테이지 오페라

1948년 한국 오페라 초연
‘라 트라비아타’
...
La Traviata

34

2018년 대한민국 오페라 70주년을 시작하며...

1948년 1월, 명동 시공관에서 열렸던 우리나라 최초의 오페라 무대 ‘라 트라비아타(La Traviata)’. 그 시대에 이런 일을 하다니... 이전에 듣고 알고 있었던 이 이야기를 다시금 쓰면서 나는 감동의 눈물을 흘리지 아니할 수 없다.

당시 초연 무대의 여주인공이었던 비올레타 역의 김자경 선생과 나의 인연에 관한 이야기는 나중에 언젠가 할 기회를 갖도록 하고 당시 제작자로, 번역자로, 그리고 테너 알프레도 역할까지 대한민국 최초의 오페라 ‘춘희’를 기획했던 이인선 선생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한다. 이인선 선생은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성악을 공부했던 명 테너이자 내과의 사이기도 했다. 한국 오페라의 문을 연 이인선 박사의 위대한 발자취는 광복 이후 그 혼란스러운 시절에 오페라 공연을 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공연 종사자로서 큰 경의감과 존경을 보낼 수밖에 없다.



1, 2 오페라 ‘춘희’ 초연무대(1948년 1월)

3, 4 오페라 ‘춘희’ 초연무대가 열렸던 명동 시공관

5 이인선 박사

〈한국 최초 101장면, 김은신, 가람기획〉에서 발췌한 내용에 따르면,

“공연 장소는 명동 한복판에 있던 시공관-현재의 명동예술극장-, 오페라 제목은 〈춘희〉였다. 아직 정부 수립이 안 되어 어수선했을 때 오페라를 한다는 광고는 문화적 갈등을 느끼던 사람들에게 매우 충격적인 일이었다.

일제 때의 명동은 일본인들이 많이 살고 있던 지역이었다. 일본 상점들이 즐비했고, 유흥가가 형성되었다. 시공관은 그들 일본인을 위해 지어진 극장이었다. 1935년에 지어진 것인데, 처음엔 명치좌라 했고, 영화 상설관으로 개관한 것이었다. 일제 때의 신문을 보면 명동 한복판인 이 극장 주변은 저녁이면 특히 나막신의 행렬로 붐볐다고 한다. 양력 설에도 극장을 찾는 일본인들의 나막신 소리가 요란하다고 은근히 비아냥거리는 기사를 볼 수 있다. 그 명동에 나막신 소리가 그쳤다. 그리고 광복된 조국에서 처음으로 오페라가 상연된다는 광고가 나붙은 것이다. 그 광고는 지나는 사람들의 발길을 멈추게 하기에 충분했다. 왜냐하면 말로만 듣던 오페라 공연이 한국의 가수들에 의해, 한국의 오케스트라에 의해 공연된다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이런 기획을 했던 곳은 ‘국제 오페라 사’라는 곳이었다. 이 오페라단

을 이끌고 있던 사람은 성악가 이인선이었다. 그는 한국에서는 처음으로 이태리로 유학을 떠나 성악을 공부하고 온 30대의 테너였다. 특이하게도 그의 본업은 내과의사였다. 그가 유학에서 돌아온 후 사재를 들여 오페라단을 조직한 것이다.

〈춘희〉의 배역에는 당시 내로라하던 성악가들이 총망라되었다. 비올레타 역의 프리마돈나는 20대 유망주 김자경과 마금희, 알프레도는 이인선 자신이 맡았다. 그 밖에 플로라 역에는 이열희, 안니나 역에는 손윤열, 제르몽 역에는 정영재, 옥인찬이 나갔고, 합창 지도는 이인선의 동생인 이유선이 맡았다. 오케스트라는 현재명을 중심으로 조직된 ‘고려 교향악단’이었다. 지휘는 이 악단의 상임 지휘자인 임원식이 맡았고, 연출은 연극 연출가인 서항석이 맡았다.

오페라 공연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경험 없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보고 들은 것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다고 자문을 의뢰할 만한 외국인도 없었다. 그러다 보니 연극하는 사람들로 부터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분장·의상·장치, 그리고 연출까지 연극인들이 참여하게 된 것은 그런 이유 때문이었다. 일하는 데 대한 보수는 둘째 문제였다. 식민지 시절의 아픔이 그대로 남아 있는 명동 한복판에서 우리의 무대를 만든다는 사실에

단원들은 들뜬 기분으로 밤낮을 모르고 열심히 일했다.

때는 1월이었다. 시공관은 대지 505평에 건평이 749평에 이르고, 객석이 1,180석이나 되는 3층짜리 건물이었으나 난방장치가 없었다고 한다. 그래서 가수들은 손을 호호 불어 가면서 연습을 했다. 공연 때도 노래를 부를 때마다 입에서 김이 허열게 나왔다. 객석에서 추위를 느낀 것은 물론이었다. 그러나 가수들도, 관객들도 그곳이 춥다고 의식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공연은 대성공이었다. 첫날부터 객석이 꽉 찼는데, 이는 이 나라에서 처음으로 열린 오페라에 대한 관심을 말해주는 것이다. 그리고 관객의 기대는 전혀 어긋나지 않았다. 오페라는 밤 공연만 했으나 낮에도 시간을 정해 하루에 2회 공연을 했다. 그래도 객석은 연일 만원이었다. 닷새의 공연이 그렇게 해서 끝이었다. 신문에서는 연일 이 초유의 공연을 기사화했는데, 오페라를 평할 만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니까 테너 누구가 참 잘하더라는 식으로만 썼다고 한다. 최초의 오페라 관람평인 셈이다. 〈춘희〉는 재공연의 청에 못 이겨 4월에 다시 주야 2회 5일간의 공연을 가졌다. 이 한국 최초의 오페라 공연 기획자인 이인선은 그후 미국으로 건너가 활동하다가 그곳에서 작고했다...”

나는 처음 이 원고를 쓰면서, “이 작품은 봄 춘춘자에 무희 姬자를 써 〈춘희〉라는 제목으로 알려졌는데 ‘La Traviata’를 해석하면 La는 관사로서 ‘the’라는 뜻, Tra는 ‘무엇과 무엇 사이에’, Via 는 ‘Street(길)’, 그리고 Ta는 뒤에 붙는 여성 명사로, 그 뜻을 해석하자면 ‘길위에 서있는-헤매는- 여인’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도 이탈리아에는 길 위에 있는 여인을 매춘부라고 하고 실제로 밤늦게 그런 여자들이 길거리에 서 있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다...” 등등이라 적으려 했다. 70주년을 접목해 나의 지식과 분석의 해박함에 관하여 자랑하며 글을 정리하려 했다. 그러다가 그 당시 사실을 다시금 알게 되면서 순수한 예술인으로서 70년 전 그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나 역시 나의 모습을 새롭게 그리면서, 부산에 들어설 오페라 하우스에 꼭 이인선 박사와 그때의 있었던 일들을 새겨 놓고 새로운 70년을 열 수 있기를 기원하기로 했다. 간절하게 말이다.

유럽 박물관 기행

글·사진 김성민 (주)유로자전거나라 교육팀장, 인문학 강사



MUSEI VATICANI



역대 교황들의 보고(寶庫) 바티칸 박물관



바티칸 박물관 출구에는 미켈란젤로, 라파엘로의 조각이 여행자를 맞이한다

좌_바티칸 박물관에서 해설하는 필자

우_바티칸 박물관 회화관으로, 1200년대 중세그림부터 바로크의 성화들을 볼 수 있다.

수 세기 동안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수집한 작품들을 전시하는 바티칸 박물관은 성 베드로 성당과 함께 이탈리아 로마 시 내부에 위치한, 세상에서 가장 작은 나라 바티칸 시국(Vatican City) 속에 들어가 있다. 로마 시 가운데를 가로지르는 테베레 강 서쪽 언덕에 위치한 이곳은 2,000년 전 이교도들의 공동 묘지 터이자 무당들이 살았던 언덕인데 네로에 의해 이곳에서 순교당한 베드로가 매장된 장소(AD64~68)이기도 하다. 이후 기독교를 공인했던 콘스탄티누스의 어머니 헬레나 성녀의 요청에 의해 AD327년 최초의 성 베드로 성당이 건립된다. 그리고 현재 바티칸에서 볼 수 있는 거의 대부분의 건물들은 아비뇽 유수(1309~1377) 기간 이후 프랑스에서 로마로 복귀한 교황청이 스스로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 1,400년대부터 시작해 최근까지 만들어졌다. 박물관의 시초는 1506년 교황 율리우스 2세(1503~1513 재위)가 자신의 개인 소장품을 일반인들에게 공개한 것을 시초로 보고 있으며 이후 크고 작은 증축이 이루어졌고 가장 최근은 2000년에 새롭게 완성한 현대식 로비 부분이 되겠다.

바티칸 박물관은 약 20만 점이 넘는 작품을 보유하고 있으며 고대 그리스시대 조각부터 르네상스와 바로크, 현대작품에 이르기까지 양질의 작품을 보유하고 있다. 바티칸 박물관과 베드로 성당까지 제대로 감상을 하려면 평균 8km 이상 걸어야 되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과 체력을 가지고 방문하는 것을 권한다. 특히 2013년 프란체스코 교황 즉위 이후로 바티칸에 관심이 집중되어 매년 박물관 방문자 수는 증가하고 있으며, 2015년 이후 하루 평균 3만 명에 가까운 인원이 방문해 연 누적 방문자 600만 명을 돌파했다. 바티칸 박물관은 매주 일요일이 휴관이며 매달 마지막 주 일요일은 무료 개방한다. 반면 이탈리아 대부분의 박물관은 월요일을 휴관일로 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바티칸 박물관은 월요일이 가장 번잡하다.

이 작품을 보기 전까지 인간 육체의 한계에 대해 논하지도 마라

이 글은 바티칸에서 르네상스의 거장 미켈란젤로(Michelangelo Buonarroti, 1475~1563)의 천장벽화를 바라본 독일의 대문호 괴테(Johann Wolfgang von Goethe, 1749~1832)가 남긴 말이다. 괴테는 불과 20대 중반의 나이에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라는 책을 쓰고 최고의 반열에 올랐지만 자신과 비슷한 30대의 나이에 너무나 놀라운 일을 했던 미켈란젤로의 작품을 바라보며 많은 반성을 했다고 전해진다.

바티칸 박물관의 핵심 미켈란젤로의 천장화

현재 일본과 우리나라에서 '천지창조'라고 부르는 이 작품의 원래 이름은 '시스티나 소성당의 천장화', 혹은 '미켈란젤로의 천장화'라고 부른다. '천지창조'라는 이름은 일본인들이 자신들의 감성으로 정한 이름인데 그 이름이 우리나라에 무비판적으로 들어온 것이다. 마치 베토벤의 '운명교향곡'처럼 말이다.(유럽에서는 교향곡 5번 다단조, The Symphony No. 5 in C minor로 불린다) 원래 조각가였던 미켈란젤로는 1505년 조각가로 바티칸에 입성했으나 이후 교황과의 불화로 인해 조각과는 전혀 다른 분야인 그림을 그리게 된다. 시스티나 소성당



미켈란젤로 '천장화' 중 '아담과 신의 손'



미켈란젤로 '천장화'



미켈란젤로 '자화상'

천장(가로13m 세로40m) 전체를 벽화로 그리라는 명령에 조각가가 그림을 그린다는 비판을 받으면서도 미켈란젤로는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구약성서 전체를 그림으로 옮기려는 계획을 세운다.

1508년부터 시작된 작업은 결국 1512년 완성된다. 당시 그림은 벽화 기법(프레스코화)으로 그려졌는데 그리고 싶은 부분을 석회반죽으로 바르고 반죽이 마르기 전 빠르게 물감을 침투시키는 상당히 힘든 기법이었다. 눈을 보호하는 장비가 전혀 없었던 미켈란젤로는 4년 동안 천장에서 떨어지는 물감과 석회를 다 맞았고 떨어질 것 같은 팔과 어깨의 무게를 감당해야만 했다. 눈의 방향조차 한쪽으로 고정되어 있었기에 작업을 잠시 쉬 때도 눈의 초점이 맞지 않았다고 하니 작업의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 충분히 알 수 있다. 미켈란젤로도 작업을 하는 4년간 단 한 번도 웃어본 적이 없었다고 고백했고 이 작품을 완성한 미켈란젤로는 이후 22년 동안 공식적으로는 그림을 그린 적이 없다고 한다. 조각가가 출신답게 너무나 역동적인 인물들의 모습에 당시 사람들은 조각 작품을 천장에 붙였다고 생각해 천장에서 돌이 떨어질까봐 주저앉았다고 하며 미켈란젤로와 당시 경쟁 관계였던 화가 라파엘로는 “작품을 보

는 순간 미켈란젤로를 향한 존경심만 남았다”고 고백을 했다고 한다.

천장화 가운데 가장 유명한 '아담의 창조'는 조물주가 최초의 인간인 아담에게(아담은 사람이라는 뜻이다) 생명의 기운을 전하는 창세기 3장의 내용을 재해석해서 생명의 기운을 손과 손으로 전하는 모습으로 그린 획기적인 작품이다. 생명의 기운을 받기 위해 인간 스스로의 노력도 필요하다는 것을 나타내듯 자신의 팔을 스스로 올리는 인간중심의 르네상스 정신과 인간의 생명은 조물주에게서 나온다는 그리스도교의 교리가 잘 융합된 작품이라 할 수 있겠다. 생명의 기운이 가득한 신의 손과 (아직 생명의 기운을 받지 못해) 힘겹게 들려있는 아담의 손을 보며 생명의 기운을 전하기 직전의 모습으로 해석되어 진다.



미켈란젤로는 처음 그림을 그릴 때는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을 썼으나 이후에는 20미터 아래에서 작품을 바라보는 것을 계산하고, 역동적이고 주제를 잘 전달하는 단순한 구도를 연구하면서 작업이 진행될수록 그림은 점점 효과적으로 간결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첫 번째 프레임은 8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고 중앙 프레임은 한 달, 마지막 프레임은 하루 만에 완성했다!!!!) 500년의 세월 동안 인류는 많은 발전을 이루었지만 불굴의 투지로 끝내 작품을 완성시킨 미켈란젤로의 스토리를 아는 사람들은 지금도 최고의 찬사를 보내는 그림이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미켈란젤로의 일화 하나를 소개하려고 한다. 어느 날 친구 한 명이 열심히 작업 중인 미켈란젤로에게 이렇게 외쳤다. “여보게 미켈란젤로! 아래에서 바라보니 그 구석은 보이지도 않는데 뭘 그렇게 열심히 그리는가.” 그 때 미켈란젤로 힘겨운 표정으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한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나는 안다네.”

예술은 원래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이고 시대가 변해도 여전히 청중과 후원자의 눈치를 보는 구조이지만 미켈란젤로는 자기 확신과 예술가로서의 고집을 가지고 이런 놀라운 흔적을 남겼으며, 역설적으로 그렇게 살지 못하는 현재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가슴의 큰 울림을 주고 있다.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는 것이 아닌 나 자신의 만족과 행복을 위해 무던한 노력을 했던 행복한 예술가 미켈란젤로의 작품은 지금도 바티칸 박물관에서 많은 여행자들을 기다리고 있다.

‘세계의 공연장에 이어 2018년 1월호부터는 (주)유료자전거나 교육팀장, 인문학 강사로 있는 김성민 씨가 ‘유럽 박물관 기행’이라는 테마로 새롭게 연재를 시작합니다. 김성민 씨는 로마 산타체칠리아 국립음악원을 졸업하고 그림과 여행이 좋아 10년간 유럽 현지에서 미술관 해설가(바티칸박물관 1000회 이상 해설)로 활동했으며, 현재 한국에서 예술융합 강사로 활동중입니다.

아름다운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생태도시 순천

2017년 달력의 마지막 장을 남겨 놓은 12월 8일,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는 분주함 속에서 정기회원과 함께하는 2017년 마지막 테마여행이 펼쳐졌다. 올해 마지막 테마 여행지는 아름다운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생태도시 순천. 이번 순천여행은 매년 겨울이면 수천 마리의 물새들이 월동하는 순천만 자연생태공원이 자리하고 있어 '생태탐조 여행'으로 기획되었으나 여행을 앞두고 AI(조류독감) 발생으로 순천만이 통제되면서 생태도시 순천을 알리는 새로운 자랑거리인 '순천만국가정원'으로 여행지를 변경했다.

절기상으로 대설(大雪)이 하루 지난 12월 8일, 테마여행 당침의 행운을 잡은 정기회원 가족들은 갑작스럽게 몰아닥친 한파에도 이른 아침부터 설레는 마음으로 여행길에 올랐다. 세 시간 넘게 달려 처음 도착한 곳은 시간이 멈춘 듯 옛 모습을 간직한 낙안읍성 민속마을. 드넓은 평야지에 축조된 성곽 내에 200여 채의 초가가 돌담과 싸리문에 가려 옹기종기 자리한 낙안읍성 민속마을은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간 듯 옛 마을 정경 그대로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다. 낙안읍성 민속마을에 도착하자 문화유산해설사 박희금 씨가 정기회원 가족을 반갑게 맞았다.

“600년 조선 시대 역사와 전통이 살아 있는 낙안읍성 민속마을은 타 지역의 민속마을처럼 관광객들을 위한 전시공간이 아닌 200여 명이 넘는 주민들이 실제로 생활하고 있는 살아 있는 민속박물관입니다.”

평지인 마을을 둘러싼 낙안읍성은 1397년(태조 6년) 낙안태생 김빈길 장군이 왜구의 침입을 막기 위해 성곽을 쌓기 시작했으며, 축성 당시에는 토성이었으나 1424년(세종 6년) 돌로 다시 쌓으면서 규모가 커졌고, 1626년(인조 4년)





임경업 장군이 낙안군수로 있으면서 증수했다고 전해진다. 읍성은 동서로 긴 직사각형으로, 동·서·남쪽에 각각 성문이 있으며 동문에서 서문을 향해 마을을 가로지르는 큰 도로가 있고, 도로 북쪽에 관아, 남쪽에 민가가 모여 있다. 현재 낙안읍성은 성곽과 내부 마을이 원형에 거의 가깝게 보존되어 있어 지난 1983년 읍성으로서는 최초로 사적 제302호로 지정되었으며, 2020년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다.

매서운 찬 바람 속에서도 정기회원들은 박희금 씨의 상세한 설명을 들으며 동문에서 남문까지 복원된 성곽을 따라 마을을 둘러보았다. 특히 읍성 전망대에 올라서자 등근 초가지붕이 어깨를 맞댄 소담스러운 풍경이 한눈에 들어온다. 낙안읍성 민속마을에는 판소리, 가야금병창을 비롯해 도자기, 한지공예, 짚물, 목공예 등 다양한 체험교실이 자리하고 있어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도 직접 체험할 수 있다.

짧은 시간 내 다 둘러보지 못한 아쉬움을 뒤로 한 채 정기회원 가족들은 오후 일정에 앞서 맛갈스러운 남도음식으로 점심식사를 마친 후 우리나라 국가정원 1호로 지정된 ‘순천만국가정원’으로 발길을 옮겼다. 세계 5대 연안습지 중 하나인 순천만은 습지 2,260만m², 갈대밭 540만m²가 펼쳐진 곳으로 흑두루미, 검

은머리갈매기 등 조류 240여 종, 붉은발말뚝개, 대추귀고둥 등 갯벌생물 300여 종이 서식하고 있다. 지난 2006년 람사르 협약 등록, 2008년 국가지정 문화재 명승 41호로 지정됐으나 해마다 늘어나는 관광객으로 몸살을 앓았고, 이에 순천 시민들은 생태계의 보고(寶庫)인 순천만의 습지와 갈대를 지키기 위해 고민하다 도심 쪽으로 5km 거리에 완충지역으로 지금의 정원을 조성했다. 이 정원은 지난 2013년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개최한 뒤 ‘순천만정원’이라 이름 붙여졌고, 이후 연간 수백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순천의 새로운 명소가 되었다. 네덜란드, 스페인, 일본, 중국 등 10개 국가정원과 국제습지센터, 테마정원 등을 갖추고 있으며 정원 곳곳에는 나무 460종 86만 주, 초화 420종 400만 본이 식재되어 있다.

“순천만국가정원은 그 면적만 110헥타르에 달합니다. 축구장의 150배 넓이죠.”

정원해설사인 강정수 씨의 안내에 따라 본격적인 탐방에 나섰다. 국가정원에 들어서면 가장 시선을 사로잡는 것은 영국 출신의 세계적인 정원 디자이너 찰스 쟁스가 만든 순천호수공원이다. 순천의 지형과 물의 흐름을 잘 살린 디자인으로, 호수는 순천의 도심, 호수를 가로지르는 긴 테크는 동천, 중심의 언덕은



봉화산, 그리고 작은 5개의 언덕은 순천 도심을 에워싸고 있는 난봉산, 인제산, 해룡산, 앵무산과 순천만을 의미한다. 국가정원의 또다른 명소인 '꿈의 다리'는 동천을 가로질러 순천만국가정원의 동서를 연결하는, 설치 미술가 강익중이 만든 세계 최초의 물 위에 뜬 미술관이다. 외벽에 오방색 유리 타일 1만여 개를 붙였고 내벽에 세계 각국 어린이들의 그림 14만 점이 빼곡하게 걸려 있다.

정기회원 가족들은 추위에 언 몸을 녹일 겸 다양한 실내조경이 연출되어 있는 기획 전시 공간인 실내정원을 둘러본 후, 보다 짧은 시간 내에 많은 정원을 둘러보기 위해 순천만국가정원 내에서 운행 중인 전기 관람차에 탑승했다. 실내정원 인근의 꿈틀정원에서 출발하는 관람차는 태국정원을 시작으로 일본, 영국, 터키, 스페인, 이탈리아, 미국, 네덜란드, 독일, 프랑스, 중국 등 국가정원과 능수매길, 수국원, 메타세콰이어길 등 정원 곳곳을 돌게 되어 있어 회원들이 앉아서 보다 편안하게 정원을 감상할 수 있었다.

어두워지는 순천만국가정원을 뒤로 하고 부산으로 돌아오는 길, 이번 여행은 정기회원 가족들에게 숨가쁘게 달려온 2017년 끝자락에서 모처럼 일상에서 벗어나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볼 수 있는 뜻깊은 여행으로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것이다.



(재)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을 위한 테마여행
아라가야의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함안



일정

- 08:00 부산문화회관 집결, 출발
- 10:00 함안 도착
함안박물관, 말이산고분군 탐방
- 11:30 무진정 탐방
- 12:30 여산팔경마을 도착, 중식
- 13:30 여산팔경마을 탐방 및 전통체험
- 14:30 고려동 유적지 탐방
- 16:00 부산으로 출발

수려한 자연풍광과 함께 아라가야의 역사가 살아 있는 유서 깊은 역사의 고장으로 떠나는 함안 여행. 함안박물관을 시작으로 아름다운 풍경이 눈길을 사로잡는 무진정, 고려동 유적지, 여산팔경마을로 여행을 떠난다.

01 월 테마여행 당첨자

● 신규 회원

- 김동환(수영구 광안해변로) 오철현(남구 오륙도로)
- 김현지(수영구 광안해변로) 유현영(사하구 괴정로)
- 박기영(남구 분포로) 정효영(남구 분포로)
- 박수경(남구 분포로) 천기순(동래구 동래로)
- 신은경(북구 금곡대로) 황인옥(남구 신선로)

● 기존 회원

- 김명수(사하구 사하로) 오일석(북구 화명신도시로)
- 김민희(영도구 태종로) 이경숙(강서구 명지오션시티로)
- 박도연(동래구 시실로) 이재일(남구 황령대로)
- 박창열(남구 석포로) 정인옥(해운대구 대천로)
- 성은경(해운대구 달맞이길) 한해수(중구 광복중앙로)

(재)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을 위한 테마여행에 응모하세요!

부산시립예술단원들과 함께 떠나는 품격 높은 테마여행의 행운을 드립니다.

테마여행에 참가하고 싶은 정기회원들은 신청엽서를 (재)부산문화회관 홍보마케팅팀으로 보내주세요. 당첨되신 회원은 동반 1인과 함께 여행에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 (체험비 회원부담)

| 신청방법 | 엽서·전화·홈페이지

|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홍보마케팅팀 607-6073, 6076

View Plus

INVITATION TO THE ARTS

부산 주요 공연장 안내

가온아트홀 | 1600-1602

경성대학교 콘서트홀 | 663-5363

공간소극장 | 611-8518

국립부산국악원 | 811-0040

글로벌아트홀 | 505-5995

금정문화회관 | 519-5651

더 무지카 아트홀 | 010-7191-2878

동래문화회관 | 550-6611

디코소극장 | 464-1996

레몬트리소극장 | 626-0116

무대공감 | 623-0678

미리내소극장 | 504-2544

부산광역시 학생예술문화회관 | 366-8114

부산문화회관 | 607-6051~5

부산북구문화빙상센터 | 309-4087

부산시민회관 | 630-5200

부산예술회관 | 612-1372

부산햇살가득한날에 | 1899-3253

센텀시티 소향씨어터 | 1544-1555

소극장 6번출구 | 625-2117

소민아트센터 | 991-1100

숨사탕아트홀 | 922-4545

수아트홀 | 744-1415

신명천지소극장 | 515-7314

아트카페 음 | 557-3369

액터스소극장 | 611-6616

에저또소극장 | 852-9161

열린아트홀 | 527-0123

영도문화예술회관 | 419-5571~3

영화의전당 | 780-6000

용천지랄소극장 | 612-4312

울속도문화회관 | 220-5812~3

일터소극장 | 635-5370

자유바다소극장 | 441-2733

차성아트홀 | 723-7203

청춘나비소극장 | 070-8241-2560

초콜릿팩토리 | 621-4005

축제 소극장 | 661-6981

한결아트홀(구.가마골소극장) | 1588-9155

해운대문화회관 | 749-7651

효로민락소극장 | 623-6232, 245-5919

AN아트홀 광안 | 1600-0316

AN아트홀 서면 | 070-4175-9035

BEXCO 오디토리움 | 740-7300

BNK부산은행조은극장 | 1588-2757

KBS부산홀 | 620-7181

MBC롯데아트홀 | 1688-8998

SM아트홀 | 1600-1602

국제로타리 3661(부산)지구 엔젤피스 예술단
2018 희망 빅 콘서트



지휘 홍성택



소프라노 오미선



테너 신동원



명창 박성희



가수 조성모

세계 최초, 세계 최대의 민간 봉사단체인 국제로타리가 후원하는 엔젤피스 예술단이 1월 9일 '2018 희망 빅 콘서트'를 통해 2018년 새해를 맞는 부산시민들에게 희망의 선율을 선사한다.

지난해 7월 1일 창단연주회를 통해 공식적인 첫 발을 내딛은 엔젤피스 예술단은 부산지역 일선 학교로부터 추천받아 선발된, 예술적 끼와 재능이 있는 초등학교 3학년에서 중학교 2학년까지 4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술 분야별 전문 감독과 트레이너로부터 다양한 예술교육을 전수받고 있다. 엔젤피스 예술단은 앞으로 차세대 문화예술인으로 성장하는 한편, 전 세계 200여 국제로타리 회원국가와의 문화교류를 통해 우리 전통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문화도시 부산의 홍보사절단으로 다양한 활동을 펼쳐나갈 예정이다.

2018년 새로운 도약을 꿈꾸며 마련하는 이번 '2018 희망 빅 콘서트'에서 엔젤피스 예술단은 지휘자 홍성택이 이끄는 네오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부산시립합창단, 김해시립합창단, 이원국발레단, 소프라노 오미선, 테너 신동원, 명창 박성희, 가수 조성모와 함께 희망찬 새해를 맞는 즐거움을 풍성한 무대로 선사한다. 네오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연주하고 부산시립합창단, 김해시립합창단, 엔젤피스 예술단(합창)의 합창으로 들려주는 칼 오르프 칸타타 '카르미나 부라나' 중 '운명의 여신이어!'를 시작으로, TV 동요 오디션 서바이벌 프로그램인 '위키드'를 통해 유명해진 '꿈꾸지 않으면(간디학교 교가)', '바람의 빛깔(애니메이션 '포카

혼타스' OST)', 차이콥스키 발레 '백조의 호수' 중 '정경', 국악가요 '시연가, 배 띄워라', 요들송 메들리, 아리랑 메들리, 안익태 '한국환상곡'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이어진다.

협연자로 무대에 서는 소프라노 오미선은 벨리니, 페루초 탈리아 비니, 아트리, 조바니 탈렌티, 수비아코 국제콩쿠르 입상, 기독교 문화예술 오페라부문 대상, 대한민국 오페라 페스티벌 여자 주역상을 수상했으며, 현재 성신여자대학교 성악과 교수로 있다. 테너 신동원은 메트로폴리탄 오페라콩쿠르, 리치아 알바네제-푸치니콩쿠르, 카루소콩쿠르, 자르자리콩쿠르, 팜비치 오페라콩쿠르 등 세계 유수의 콩쿠르에서 우승하며 세계적으로 이름을 알렸으며 현재 수원대학교 교수로 후진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현재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수석, 국악전문단체 타로 공동대표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명창 박성희는 제12회 장흥전통가무악 전국제전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했으며, 앨범 판매량 공식 1,600만 장으로 역대 1위를 기록하기도 한 가수 조성모는 최근 뮤지컬 '광화문 연가', '요셉 어메이징', '카페인' 등을 통해 뮤지컬 배우로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일시 1월 9일 화요일 오후 7:30 장소 벅스코 오디토리움 입장료 초대 문의 엔젤피스 예술단 637-3661~2

부산시립무용단 특별공연 안무가 양성 프로젝트 II '몸으로 쓰는 시'



자신만의 춤, 언어와 몸짓을 통해 직접 빚어낸 단원들의 참신한 작품 세계를 감상할 수 있는 부산시립무용단 안무가 양성 프로젝트 '몸으로 쓰는 시'가 1월 17일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에서 펼쳐진다.

안무가 양성 프로젝트 '몸으로 쓰는 시'는 지난 2016년 오랜 전통을 이어온 '한 여름밤의 춤 작품전'을 계승한 무대로, 부산의 여름을 빛내는 열정적인 창작 춤 무대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이번 '몸으로 쓰는 시'는 지난해 8월, 무대에 올릴 예정이었으나 공연장소인 중극장이 리모델링 공사에 들어가면서 올해로 미뤄진 무대로, 단원 김시현, 이용진, 장영진&박미나, 이현주, 남도옥이 창작한 다섯 작품을 선보인다.

김시현의 '몽 타임 노 씨'는 소주 한 잔에 담긴 우리들의 이야기를 통해 청춘을 담아낸 작품으로 강모세, 이상민, 조현배, 이나라, 정재준과 함께 무대에 오른다. 김시현은 그동안 '소금꽃', '나를 팔아 나를 품다', '75분의 1초' 등을 선보여왔다. 단원 이용진의 '사자후(who)'는 똑같이 태어났으나 각각의 환경, 조건에 따라 다른 형태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 다름에서 오는 갈등을 북청사지늘음의 춤과 음악을 차용해 현대적으로 해석한 작품으로, 이용진과 김유성, 강건이 무대에 오른다. 지난해 '댄스프로젝트 에게로'의 창작춤 '콘크리트 인간'으로 부산무용제 대상, 안무상, 전국무용제 은상, 연기상을 수상한 이용진은 2012년과 2015년 'The Blind', '흐름'으로 '새물결 춤 작가전'에서 최우수상, 남자연기상을 수상했으며, 그 외에도 'sunrise / sunset',

'삶은 계단', '사자의 서', '백호자작검무', 'chain reaction' 등 다양한 작품을 선보여왔다.

단원 장영진과 박미나는 '춘향전'의 사랑가를 새롭게 재해석, 남녀 간의 사랑과 슬픔을 이미지화 한 '두 사람'을 무대에 올린다. 지난해 '몸으로 쓰는 시'에서도 공동안무로 '스며들다'를 선보인 장영진과 박미나는 2016년 베이징 댄스 페스티벌과 금정산생명문화축전, 드림 앤 비전 댄스 페스티벌에 초청받아 무대에 오른 바 있다. 단원 이현주는 은하수의 가장 밝은 곳에서도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하는 행성에 빚대어 자신의 내면을 진솔한 시선으로 풀어낸 작품 '칠구년 시월생'을 선보인다. 그동안 '우리춤 산책'을 통해 태평무, 살풀이, 장구춤을, '한 여름밤의 춤 작품전'을 통해 '다소다', '부르터나다' 등을 선보여온 이현주는 이번 무대에서 강모세와 함께 창작춤판을 펼친다. 남도옥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세월호, 촛불집회 등 인간성이 말살되고 개성과 창의성은 묵살되었던 지난 시기를 중세의 문화부흥과 비교하여 한국적인 정서로 그려낸 '르쌍스 Re-ssance'로 관객과 만난다. 2010년 일본 후쿠오카 프린지 페스티벌 관객상을 수상하기도 한 남도옥은 그동안 '흔적', '중독시리즈', '부재중', '염증', 'Patting', '중독.addiction' 등 다수 작품을 무대에 올렸다.

일시 1월 17일 수요일 오후 7:30 **장소**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입장료** 전석 5천원(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부산시립무용단 607-3121~2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2017-2018 베토벤 심포니 사이클 IV **금난새 & 뉴 월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불멸의 악성(樂聖)' 베토벤 교향곡 전곡을 감상할 수 있는 특별한 무대 '2017-2018 베토벤 심포니 사이클' 2018년 첫 무대가 F1963 석천홀에서 펼쳐진다.

2017년 10월 '교향곡 제1번'으로 시리즈의 첫 문을 연 '2017-2018 베토벤 심포니 사이클'은 총 9곡의 베토벤 교향곡 전곡을 만날 수 있는 특별한 무대로, 한국이 자랑하는 지휘자 금난새와 그가 음악감독으로 있는 뉴월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완성도 높은 무대를 선사해오고 있다. 특히 베토벤 교향곡과 더불어 낭만과 시대의 대표적인 기악 협주곡을 함께 편성, 실력 있는 연주자들의 협연무대로 함께 감상할 수 있어 관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해 12월에 이어 부산의 새로운 '핫 플레이스'로 떠오른 고려제강 F1963 석천홀에서 열리는 이번 무대에서는 우리나라 여성 첼리스트의 자존심이라 불리는 첼리스트 이정란의 협연으로, 베토벤 중기 작품 중 가장 중요한 작품으로 평가받는 교향곡 제3번 '영웅'과 차이콥스키 '로코코 주제에 의한 변주곡 작품 33'을 들려준다.

첫 곡인 베토벤 교향곡 제3번 '영웅'은 1803년 작곡 당시 베토벤이 공화주의 이상을 실현할 수 있는 새로운 시대의 지도자라 여겼던 나폴레옹의 성을 따 '보나파르트'라 이름 붙였으나 나폴레옹이 스스로 황제의 자리에 올랐다는 소식을 들은 후 그 이

름을 지우고 '영웅'이라 명명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국민들 위에 군림하는 독재자가 아닌 그들과 함께 시대적 모순을 변혁해가는 보통 사람들의 영웅을 꿈꿨던 베토벤의 정치적 이상을 엿볼 수 있는 작품으로, 베토벤의 진면목을 느낄 수 있는 첫 번째 교향곡으로 평가받고 있다. 첼로의 풍부한 표현력을 담아낸 차이콥스키의 '로코코 주제에 의한 변주곡 작품 33'은 모차르트 풍의 우아한 첼로 선율을 통해 모차르트에 대한 작곡가의 존경과 사랑이 돋보이는 작품으로, 로코코적인 분위기에 차이콥스키의 개성이 잘 드러나 있다.

협연자로 관객과 만나는 첼리스트 이정란은 지난 2000년 독일 파블로 카잘스 콩쿠르에서 로스트로포비치 파운데이션 특별상인 최고 유망 연주가 상을 시작으로 2003년 폴란드 루토슬라브스키 콩쿠르 특별상, 이듬해인 2014년 스페인 클라렛 모구에르 콩쿠르, 프랑스 모리스 장드롱 콩쿠르 2위, 그리고 2006년 윤이상 국제음악콩쿠르 1위 및 현대음악 특별상, 2007년 한국음악협회 선정 올해의 신인상을 수상했으며, 세계적인 실내악단 트리오 제이드와 금호아시아나솔로이스츠 멤버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부산 무용의 저력을 다시 한 번 확인하며

부산시립무용단 제77회 정기공연



©Park Sang Yun

◆ 심정민 무용평론가, 비평사학자

무용창작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곳은 아무래도 서울이다. 하지만 서울에서 중추적으로 활동하는 무용가의 상당수가 지역 출신이라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특히 제2의 무용 도시로 일컬어지는 부산은 개성 있고 독자적인 스타일을 가진 창작자를 많이 배출해 왔다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 지역색이 강한 만큼 개별적인 창작색도 강하다고나 할까. 지난 11월 23-24일 부산문화회관에서 있었던 부산시립무용단(예술감독 김용철)의 제77회 정기공연 '댄스 포스(Dance Four's)'를 장식한 김남진, 강용기, 박근태, 박재현 역시 4인4색의 창작으로서 부산 무용계의 자존심을 지켰다.

김남진은 역사적 아픔이라든가 사회적 이슈를 춤으로 다룰 줄 아는 몇 안 되는 무용가 중 하나다. '또 다른 봄'은 일본군 위안부라는 어렵고 민감한 소재를 다루고 있다. 세워진 높은 벽에 오르고 굳게 닫힌 문을 두드리는 한 소녀의 몸짓이라든가, 3개의 긴 탁자 위와 아래에 눕혀져 기계적으로 흔들리는 여섯 소녀의 몸짓을 통해, 기본적인 인권마저 박탈되어 부속물처럼 취급당하는 위안부의 모습을 그린다. 뚜렷하고 명료하지만 과하지는 않은 지점을 정확하게 짚어냈다는 점에서 김남진의 창작 역량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상징성과 구체성의 균형잡기는 허벅지 사이로 피를 흘리는, 너무나 직접적인 묘사로부터 깨지게 되었으며 이후 작품에 대한 집중력이 흐트러졌다.

강용기의 '무애행'은 어디론가 끊임없이 밀려가는 중생들의 모습을 통해 인생의 고뇌를 그린다. 이를 구구절절하게 표현하기보다 서로 얽히고설켜는 조형적인 군무로 강도 높게 펼쳐졌다. 그리고 이러한 움직임 안에 인생사의 괴로움, 욕망, 슬픔 등을 담아 냈다. 마침내 목이 매달렸던 여자가 쓰러지면서, 어렵게 메달렸던 인생사가 덧없이 마무리된다. 상당한 에너지와 합(合)을 요하는

안무 탓인지 무용수들의 몸짓이 매끄럽지 못한 부분도 있었으나 전반적으로 춤의 역동적이고 발전적인 느낌은 잘 그려졌다. 보통 오페라와 발레로 잘 알려진 '카르멘'이 박근태에 의해 한국적인 창작무용으로 재창조되었다. 아쉽게도 박근태의 '카르멘'은 발레극으로 표현되어야 할 작품을 한국무용으로 풀어간 듯한 미묘한 어긋남을 드러냈다. 동명의 오페라를 메인으로 하여 간간이 국악을 섞은 음악에서도 마찬가지다. 인물 설정이 비교적 뚜렷한데도 정확히 어떤 내용으로 전개되는지 파악할 수 없었다는 점 역시 짚어봐야 한다. 원작에 대한 보다 심도 있고 창의적인 분석이 필요하며, 어떤 종류의 춤사위로 구현해낼지에 대한 의식도 요구되는 바다.

박재현의 '금홍야 금홍야'는 시인 이상과 기생 금홍 그리고 화가 구본웅의 미묘한 감정의 추이를 다루고 있다. 인물들 간 관계성에 다소 신파조가 묻어나오는 가운데 이를 연기적 표현보다 움직임 그 자체로 그려나갔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동시대적인 춤의 방식이기 때문이다. 민초, 해학, 품바, 신파와 같은 우리 고유의 표현적 소재들은 몸 안에 담겨진 기가 강하지 않으면 유치하고 우스꽝스럽게 느껴지기 쉬운데 그동안 부산 무용가들에 의해 유독 잘 실현되어 왔다. 이 작품에 담겨진 신파조 역시 부산시립무용단에 의해 상당히 잘 그려졌다고 할 수 있다.

2010년대 들어 혹독하게 불어 닦친 지역 무용계의 위축은 우리나라 무용계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산시립무용단이 침체일로에 부산 무용계에 활기를 돋우기 위해 허리세대 무용가에게 필요한 무대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칭찬을 아낄 수 없다. 이러한 기획공연들이 보다 활성화되어 부산 무용계의 부흥을 이끄는 구심점으로 역할해가기를 바란다.

추억으로 가는 마차

부산시립극단 제60회 정기공연 '돌아와요 부산항에'



◆ 김남진 경성대학교 초빙교수, 댄스씨어터 창 예술감독

나는 연극평론가도 아니고 글을 쓰는 작가도 아니다. 나 역시도 작품을 창작하는 사람으로서 남의 작품에 대하여 이렇다 저렇다 평하기도 그렇다. 또 이 글을 읽는 사람들에게 어려운 단어와 이해할 수 없는 문장으로 잘난 척을 하고 싶지도 않다. 그냥 그 날 본 나의 공연 후기를 간단히 적어보려 한다.

언제부터인가 TV와 영화에서 1970-80년대를 다루며 대중의 향수를 자극한다. 영화 '국제시장'은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로 나의 마음을 적셨고 TV 드라마를 잘 보지 않는 나도 '응답하라 1988'은 챙겨보며 아내와 그때를 회상하면서 수다를 떨곤 했다. 나도 그만큼의 나이가 들었나보다. 특히 이 두 작품은 현대와 과거를 오가며 그려내는 연출이라 보는 재미를 더한다. 과거에서 현재로 이끌어내는 나레이션, 달려가는 장면에서 과거로 넘어가 버리는 기법 등을 통하여 우리는 시간을 넘나들었다.

극장 객석에 불이 꺼지고 영상으로 시작되는 뮤지컬 '돌아와요 부산항에'는 어릴 적 2편의 영화를 동시상영하던, 어느 허름한 극장에서 보았던 '대한뉴~스'를 생각나게 한다. 그렇게 시작된 도입부에는 부산 뱀새가 강하게 의도된 왓지컬한 자갈치 시장이 등장한다. 작품은 잊을 수 없는 옛 사랑을 찾아 세월을 거슬러 온 헤르만 강(전성환)이 그토록 만나고 싶었던 옛사랑을 만난다는 이야기지만, 작품이 전개되는 동안 우리는 옛 기억 속으로 많은 여행을 한다. 지금은 사라진 하야리아부대를 배경으로 한 술집들, 정구지 찌짐을 팔던 시장 속 어딘가로 나를 밀어 넣는다.

어느덧 그 속에서 노래 가사를 따라 부르고 있는 나를 발견했을 때 나는 과연 공연 예술이 가야할 곳이 어디인가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되었다. 소위 예술을 한답시고 관객과 공감하지 못하는 어

려운 언어, 주제, 몸짓을 가지고 순수예술이라고 고집하는 작품들이 얼마나 난무하는 세상인가? 그동안 진짜 순수관객들은 얼마나 배신감을 느꼈을까? 관객이 무엇을 원하는지? 객석에선 어떤 소리를 하는지? 우리 예술가들은 깊이 고민해야 한다.

부산에는 부산만이 가지는 독특한 정서가 있다. 이번에 뮤지컬 '돌아와요 부산항에'가 부산시립무용단과 함께하여 움직임적인 요소를 풍성하게 만든 것은 아주 고무적인 일이다. 이처럼 이제는 장르를 떠나 협업을 통하여 부산적인 작품, 국제적인 작품을 만들 때이다. 부산의 예술가들은 부산의 것을 시민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컴퓨터 게임에 빠지고 과외의 족쇄를 찬 우리 청소년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것도 바로 이런 예술작품이다. 나는 중학교 시절 부산시민회관에서 본 송승환 주연의 연극 '꿈'이란 작품을 아직도 기억한다. 그 '꿈'이 나를 '꿈'꾸게 했으므로...

두 시간이 조금 모자라게 여러 무대장치를 옮겨가며 집중도 있게 관객과 함께한 뮤지컬 '돌아와요 부산항에'에서 객석을 꽉 메운 중년층의 관객들은 아마도 이 날, 두 시간의 행복에 흠뻑 젖었을 것이다. 나 역시 나이가 들다보니 젊은 친구들이 곡사포처럼 쏘아대는 랩, 가요보다는 노랫말에 눈물샘이 자극되는, 또 그때를 돌이켜 볼 수 있는 이러한 노래가 더 아름답게 들리니 말이다.

다시 한 번 '돌아와요 부산항에'를 통하여 관객과 함께 마음으로서 여행을 떠나게 해준 부산시립극단에게 뜨거운 박수를 보내며 이 겨울, 잠시나마 잊었던 옛사람을 추억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프로그램 가이드
부산문화회관

(재)부산문화회관 기획전
빛나는 시작, 눈부신 기억
'라이프 사진전'

일 시 2018년 1월 1일(월)~4월 8일(일) 전시실
입장료 성인(만19세~64세) 1만3천원
청소년(중·고교생) 1만1천원
어린이(48개월~초등학생) 9천원
45개월 미만 무료(증빙서류 지참)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070-7542-8531



2018년 무술년(戊戌年)의 시작을 알리는 특별한 전시 '라이프 사진전'. '타임(Time)', '포춘(Fortune)'을 창간한 헨리 루스(Henry R. Luce)가 지난 1936년 11월 창간한 '라이프(Life)'는 사진만이 지니는 생생한 박진감으로 포토저널리즘을 주도하며 창간호부터 큰 성공을 거두며 수십 년간 세계의 저널리즘을 이끌어왔다.

지난 1966년 첫 전시 이후 4번째로 열리는 이번 '라이프 사진전'에서는 그동안 국내 전시에서 소개되지 않은 작품들을 중심으로 130여점을 엄선. 중요한 역사적 사건의 현장에서부터 평범한 일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작품을 통해 지난 세기의 역동성을 생생히 전

한다. 전시는 20세기를 바라보는 20가지 이야기가 담겨있는 'This is LIFE', 하나의 스타일이 되어버린 상징적인 인물과 사건을 나란히 배치한 'Icon', 오로지 20세기에 탄생한 물건과 현상에 대한 오마주를 담은 '20th Century Life', 그리고 사진잡지 '라이프'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관통하고 있는 하나의 시선을 보여주는 'Hope' 등 4가지 섹션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TIME에 선정된 '세상에 가장 큰 영향력을 주었던 사진 100'에서 선정된 4장의 사진이 이번 전시에 포함되며, 각각의 작품들을 위해 특별히 제작된 다큐멘터리 필름도 같이 전시된다.

특히 이번 전시는 부산 전시 최초로 관객 경험 중심의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다양한 눈높이로 전 연령대를 아우르는 맞춤형 도슨트로 관람객의 이해를 도우며, 캄캄한 전시공간에서 자신만의 손전등으로 작품을 관람하는 '라이프 라이트', 오직 한 컷을 위한 전시장에서 스몰 웨딩 등 다양한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다.

*이벤트 일정과 참여방법은 추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조성진 피아노 리사이틀

일 시 1월 7일 일요일 오후 5:00 대극장
입장료 R석 1만원 S석 9만원 A석 7만원 B석 5만원
(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10% 할인)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쇼팽 콩쿠르 한국인 첫 우승자로 현재 가장 주목받는 피아니스트이자 클래식계 스타로 사랑받고 있는 조성진 피아노 리사이틀.

뛰어난 재능과 타고난 음악성으로 지난 2009년 제7회 하마마쓰 콩쿠르는 최연소 우승에 이어 2011년 차이콥스키 국제콩쿠르와 2014년 루빈스타인 국제콩쿠르에서 3위에 오르며 확실한 라이징 스타로 떠오른 조성진은 마침내 2015년 10월, 만 21살의 나이로 제17회 쇼팽 국제피아노콩쿠르에서 한국인 최초로 1위를 차지하며 전 세계에 스타 탄생을 알렸다.

프로그램
베토벤/피아노 소나타 8번 작품 13 '비창'
베토벤/피아노 소나타 30번 작품 109
드뷔시/영상 2집
쇼팽/피아노 소나타 3번 작품 58

이주는 피아노 독주회
함머클라비어와 4색발라드

일 시 1월 9일 화요일 오후 8:00 챔버홀
입장료 전석 2만원
문의 영음예술기획 02-581-5404



자연스럽고 유려한 테크닉 속에서 진지한 열정이 돋보이는 피아니스트 이주는 독주회.

피아노를 통한 의사표현이 분명한 연주자로 평가 받고 있는 이주는 지난 2006년 스페인 하엔 국제피아노콩쿠르, 이탈리아 칼라브리아 국제피아노콩쿠르, 카사그란데 국제피아노콩쿠르 등 권위있는 피아노콩쿠르에서 다수 입상하며 국제무대에 주목받기 시작했다. 2010년 윤이상 국제음악콩쿠르에서 입상하며 국내 음악계에서도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이주는 독일 유학 중 뛰어난 기량과 성숙한 연주력으로 현지 언론의 호평을 받았으며, 그 공로를 인정받아 2012 바이에른 예술가 상을 수상했다.

이주는 지난 2013년 귀국 후 연주자로서 활발한 활동과 함께 국립 창원대학교 음악과 교수로 후학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한음챔버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일 시 1월 13일 토요일 오후 5:00 중극장
입장료 초대
문의 한음챔버오케스트라 010-9383-02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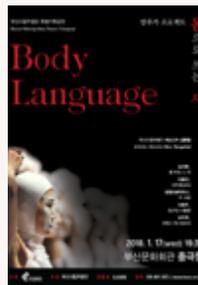
중학생부터 대학생까지 음악을 좋아하는 학생들로 구성된 한음챔버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지난해 1월 작은 리사이틀을 시작으로 12월에는 초청연주회를 통해 관객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은 한음챔버오케스트라는 올해 7월, 글로벌한 연주경험과 정서적 함양을 위해 이태리 피렌체에서 열리는 청소년 페스티벌에 참가할 예정이다.

프로그램
비발디/현을 위한 협주곡 사단조 RV.152
김효근/첫사랑
카를로스 가르델/간발의 차이(Por Una Cabeza)
비발디/합주협주곡 라단조
비발디/현을 위한 협주곡 사단조 RV.156 등
● 지휘/한행래 ● 소프라노/김나영
● 테너/조윤환 ● 베이스바리톤/양재원
● 피아노/김현경 ● 춤서경호, 기미혜

부산시립무용단 특별공연
안무가 양성 프로젝트 II
'몸으로 쓰는 시'

일 시 1월 17일 수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전석 5천원(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부산시립무용단 607-3121~2



자신만의 춤 언어와 몸짓을 통해 직접 빚어낸 단원들의 참신한 작품 세계를 감상할 수 있는 부산시립무용단 안무가 양성 프로젝트 II '몸으로 쓰는 시'.

'몸으로 쓰는 시'는 지난 2016년 오랜 전통을 이어온 '한 여름밤의 춤 작품전을 계승한 무대로, 부산의 여름을 빛내는 열정적인 창작 춤 무대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이번 '몸으로 쓰는 시'는 지난해 8월, 무대에 올릴 예정이었으나 공연장소인 중극장이 리모델링 공사에 들어가면서 올해로 미뤄진 무대로, 단원 김시현, 이용진, 장영진·박미나, 이현주, 남도욱이 창작한 다섯 작품을 선보인다.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36회 정기연주회 부산시향과 최수열의 '2018 신년음악회'

일 시 1월 19일 금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R석 2만원, S석 1만5천원,
A석 1만원, B석 5천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부산시립교향악단 607-3111~3



2018년 무술년 새해를 맞아 부산시립교향악단이 희망의 선율을 선사하는 '부산시향과 최수열의 2018 신년음악회'.

상임지휘자 최수열이 지휘하고 현존하는 사물놀이 단체 중 최고의 팀워크를 자랑하는 '사물광대'가 협연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신년음악회의 단골 레퍼토리인 요한 슈트라우스 2세의 '박쥐' 서곡을 시작으로 강준일의 사물놀이와 관현악을 위한 협주곡 '마당', 드뷔시의 관현악을 위한 3개의 교향적 스케치 '바다'를 들려준다. 특히 부산시립교향악단과 사물광대의 절묘한 앙상블이 어우러지는 협주곡 '마당'은 우리의 전통 농악장단을 소재로 국악과 양악의 리듬감을 조화시킨 곡으로, 신명 넘치는 사물가락으로 무술년 새해의 문을 힘차게 열어준다.

이번 무대에서 사물놀이의 진면목을 선사할 '사물광대'는 김한복(징), 박안지(꽝과리), 신찬선(장구), 장현진(북)으로 구성된 사물놀이단체로, 김덕수, 이광수, 김용배, 최종실 등 원조 사물놀이의 첫 번째 공식제자이자 첫 번째 세계사물놀이겨루기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으며 국악계의 주목을 받았다. 1988년 1월, 김덕수패 사물놀이로부터 '사물광대'라는 영예로운 이름을 부여받으며 활동을 시작한 후 지난 30여년 동안 명실상부 최고의 사물놀이 단체로 많은 무대에 서왔다.

프로그램

요한 슈트라우스 2세/오페레타 '박쥐' 서곡
강준일/사물놀이와 관현악을 위한 협주곡 '마당'
드뷔시/관현악을 위한 3개의 교향적 스케치 '바다'
바다 위의 새벽부터 한낮까지-물결의 희롱-바람과 바다의 대화

- 지휘/최수열(상임지휘자)
- 협연/사물광대(징 김한복, 꽝과리 박안지, 장구 신찬선, 북 장현진)



CANTABILE 칸타빌레

일 시 1월 25일 목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전석 2만원
문의 仙 기획 010-7506-2500



2015 마산음협콩쿠르 입상, 2017 글로벌콩쿠르 은상을 수상한 바이올리니스트 함재원, 동아대학교 대학원 음악문화학 박사과정 중인 수료하고 코리아 헤럴드 콩쿠르 전체 대상, 2012 NPO WFAO 국제 심포지엄 대한민국 대표로 활동

한 바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이미원, 비엔나 전국청소년콩쿠르 2등, 부산음협콩쿠르 2등, 밀양아리랑대축제 콩쿠르 1등 및 한국음악학회 이사장상을 수상하고 올해 부산예술중학교에 입학하는 바이올리니스트 이진희, 그리고 영국왕립음악원을 수료하고 그동안 7차례 독주회를 비롯 앙상블 연주회, 듀오 리사이틀, 재능기부 연주회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피아니스트 유경아가 함께하는 무대.

현재 경상북도립교향악단 상임지휘자이자 동아대학교 겸임교수로 있는 지휘자 이동신이 지휘하는 부산교향악단의 연주로 생상, 브루흐, 할로, 베토벤 협주곡을 들려준다.

Cinema Classic 시네마 클래식

일 시 1월 27일 토요일 오후 5:00 중극장
입장료 전석 2만원(학생 50% 할인)
문의 오앤엠 엔터테인먼트 02-6396-0302



2011년 세계 3대 콩쿠르 중 하나인 차이콥스키 국제콩쿠르에서 우승하며 세계적인 주목을 받은 최고의 소프라노 서선영과 국제 슈베르트 콩쿠르에서 당당히 입상한 테너 진성원, 코리안 심포니오케스트라 수석, 부수석 단원들로 구성된

현악앙상블이 함께하는 특별한 무대 '시네마 클래식'. 송어, 바위 위의 목동 등 우리 귀에 익숙한 슈베르트의 곡들로 꾸며지는 1부 무대에 이어 2부 무대에서는 영화 '올드보이', '드라이빙 미스 데이지', '파파로티', '위험한 정사', '라리렌드' 등 영화 속에 비춰지는 사랑과 비극, 잔잔한 감동들을 연주와 스크린 영상, 콘서트 가이드의 진행으로 관객들에게 전달한다.

- 출연/서선영(소프라노), 진성원(테너), 고윤진(피아노), 이유민(바이올린), 윤지원(첼로), 이무열(비올라), 이재준(콘트라베이스), 장재경(클라리넷), 최정훈(편곡), 김세호(콘서트가이드)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특별연주회 2018 신년음악회 '영산회상&국악관현악의 만남'

일 시 1월 31일 수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1중 1만원, 2중 5천원(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의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607-3124



희망찬 2018년 무술년(戊戌年)을 맞아 새해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하기 위해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이 마련한 2018 신년음악회 '영산회상&국악관현악의 만남'. 수석지휘자 이정필의 지휘로 펼쳐지는 이번 무대에서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풍류음악인 '영산회상'을 국악관현악으로 들려준다.

우리나라 전통음악 가운데 궁중이나 민간에서 연주되던 현악합주곡인 '영산회상'은 원래는 불교의 성악곡이 그 기원이다. 석가여래가 중생을 구도하고자 설법하던 영취산에 불자들이 모여든 것을 가리켜 영산회라 했으며, 이 영산회에서 불보살의 자비와 성덕을 찬양한 가사 '영산회상불보살(靈山

會相佛菩薩)에 곡을 얹어 부른 것이 바로 '영산회상'이다. 17세기 말에 접어들면서 기악곡으로 바뀌기 시작한 '영산회상'은 18세기에 민간의 풍류객들에게도 널리 연주되었으며, 19세기의 영산회상은 오늘날의 모습과 거의 비슷한 체계를 갖추고 있다.

현재의 '영산회상'은 상영산, 중영산, 세영산, 가락덜이, 상현도드리, 하현도드리, 영불도드리, 타령, 군악 등 총 9곡 구성이 기본이다. 이 중 영산회상 불보살의 원형은 상영산이며, 이것을 변주한 것이 중영산~가락덜이, 여기에 도드리 장단의 곡들을 비롯한 다른 곡들이 첨가되어 현재와 같은 형태로 정착됐다. 또 악기의 편성이나 조의 편성에 따라 세 가지 종류의 영산회상이 존재하는데, 현악 영산회상(중광지곡), 평조회상(유초신지곡), 관악 영산회상(표정만방지곡)으로 나뉘며, 일반적으로 '영산회상'이라고 하면 현악 영산회상을 지칭한다.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은 이번 신년음악회를 시작으로 올 한 해도 우리 국악의 멋과 신명을 전할 수 있는 다양한 무대로 관객과 만난다.



음악 | Music

프로그램 가이드
기타공연장

국제로타리 3661(부산)지구 엔젤피스 예술단
2018 희망 빅 콘서트

일 시 1월 9일 화요일 오후 7:30 벅스코 오디토리움
입장료 초대

문의 엔젤피스 예술단 637-3661~2



세계 최초, 세계 최대의 민간 봉사단체인 국제로타리가 후원하는 엔젤피스 예술단이 2018년 새해를 맞는 부산시민들에게 희망의 선물을 선사하는 '2018 희망 빅 콘서트'.

2018년 새로운 도약을 꿈꾸며 마련하는 이번 '2018 희망 빅 콘서트'에서 엔젤피스 예술단은 지휘자 홍성택이 이끄는 네오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부산시립합창단, 김해시립합창단, 이원국발레단, 소프라노 오미선, 테너 신동원, 명창 박성희, 가수 조성모와 함께 희망찬 새해를 맞는 즐거움을 풍성한 무대로 선사한다.

- 가수/조성모 ● 명창/박성희
- 테너/신동원 ● 소프라노/오미선
- 발레/이원국발레단
- 합창/부산·김해시립합창단
- 연주/네오필하모닉오케스트라(지휘/홍성택)
- 합창·무용(타악) 외/엔젤피스 예술단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2017-2018 베토벤 심포니 사이클 IV
금난새 & 뉴 월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일 시 1월 20일 토요일 오후 5:00 F1963 석천홀
입장료 R석 4만원, S석 3만원

문의 F1963 석천홀 760-2604, www.f1963.org



'불멸의 악성(樂聖) 베토벤 교향곡 전곡을 감상할 수 있는 특별한 무대 '2017-2018 베토벤 심포니 사이클' 2018년 첫 무대.

2017년 10월 '교향곡 제1번'으로 시리즈의 첫 문을 연 '2017-2018 베토벤 심포니 사이클'은 총 9곡의 베토벤 교향곡 전곡을 만날 수 있는 특별한 무대로, 한국이 자랑하는 지휘자 금난새와 그가 음악감독으로 있는 뉴월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완성도 높은 무대를 선사해오고 있다. 특히 베토벤 교향곡과 더불어 낭만파 시대의 대표적인 기악 협주곡을 함께 편성, 실력있는 연주자들의 협연무대로 함께 감상할 수 있어 관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부산의 새로운 '핫 플레이스'로 떠오른 F1963 석천홀에서 열리는 이번 무대에서는 우리나라 여성 첼리스트

트의 자존심이라 불리는 첼리스트 이정란의 협연으로, 베토벤 중기 작품 중 가장 중요한 작품으로 평가받는 교향곡 제3번 '영웅'과 차이코프스키 '로코코 주제'에 의한 변주곡 작품 33'을 들려준다. 베토벤 교향곡 제3번 '영웅'은 보통 사람들의 영웅을 꿈꿨던 베토벤의 정치적 이상을 엿볼 수 있는 작품으로, 베토벤의 진면목을 느낄 수 있는 첫 번째 교향곡으로 평가받고 있다.

협연자인 첼리스트 이정란은 지난 2000년 독일 파블로 카잘스 콩쿠르에서 로스트로포비치 파운데이션 특별상인 최고 유망 연주가 상을 시작으로 2003년 폴란드 루토슬라브스키 콩쿠르 특별상, 이듬해인 2014년 스페인 클라렛 모구에르 콩쿠르, 프랑스 모리스 장드롱 콩쿠르 2위, 그리고 2006년 윤이상 국제음악콩쿠르 1위 및 현대음악 특별상, 2007년 한국음악 협회 선정 올해의 신인상을 수상했으며, 세계적인 실내악단 트리오 제이드와 금호아시아나솔로리스트 멤버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프로그램

베토벤/교향곡 제3번 내림마장조 '영웅' 작품 55
차이코프스키/로코코 주제에 의한 변주곡 작품 33

- 지휘/금난새
- 첼로/이정란
- 연주/뉴월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금정수요음악회

일 시 1월 24일(수), 31일(수)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일반 1만원, 청소년 5천원

문의 금정문화회관 519-5661

24일(제633회) 뉴부산 클라리넷 콰르텟 신년음악회



클라리네티스트 손기영, 김태훈, 최우선, 이효주로 구성된 뉴부산 클라리넷 콰르텟이 마련한 2018 신년음악회. 클래식을 비롯한 재즈, 팝, 영화음악 등 다채로운 장르의 곡들을 클라리넷 콰르텟만의 매력적인 선율로 들려준다.

- 협연/클라리네티스트 이임수

31일(제634회) BUM Percussion Ensemble
창단연주회 'EDGE'

이성은, 김단비, 박선영, 이말순, 김영훈, 노선미 등 젊은 타악 연주자로 구성된 BUM 타악앙상블 창단연주회.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기존 타악기 음악에서 탈피, 대중적이면서도 친숙한 곡들로 관객과 함께 호흡하는 무대를 선사한다.

오충근&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제32회 프롬나드 콘서트

신년의 미소 New Year's Greetings

일 시 1월 25일 목요일 오후 7:00

부산상공회의소 부산캠퍼스퀘어

입장료 무료

문의 부산상공회의소 홍보팀 990-7090~4

기업의 릴레이 후원으로 오충근 예술감독이 이끄는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가 지난 2014년 10월부터 매월 정기적으로 개최해온 프롬나드 콘서트 2018년 첫 무대. 2018년 신년음악회로 마련되는 이번 무대에서는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악장 황지원의 협연으로 음악을 통한 새해의 출발, 희망 메시지를 전하는 상쾌한 곡들로 신년 인사를 나눈다.

프로그램

모차르트/디베르티멘토 1번
엘가/사랑의 인사 등 수곡



연극 | Play

국민연극 '라이어 투에'

일 시 2017년 11월 17일(금)~2018년 2월 25일(일)
화-금요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공휴일 오후 2:00, 5:00(월요일, 1/2일
공연없음) KNN시어터

입장료 전석 3만원

문의 (주)오르골씨어터컴퍼니 664-7880



소심한 은행원 영호의 생일날, 택시를 타고 가던 중 자신의 서류가방이 야쿠자의 돈가방과 뒤바뀐다. 야쿠자가 자신을 찾아오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영호와 안절부절 못하는 아내, 그를 의심하는 형사, 잠시 잊혀졌던 야쿠자 등

여러 유형의 사람들이 영호를 괴롭힌다. 상황을 무마하려고 시작한 '작은 거짓말'이 나중에는 어마어마하게 커져 영호를 압박하기 시작한다.

연극 '라이어 투에'는 누구나 꿈꾸는 일확천금의 행운과 인간의 기본적인 도리 사이에서 갈등하는 주인공의 모습을 유쾌하게 담은 작품으로, 다른 시리즈들과 달리 한국을 배경으로 해 친밀감을 더했다.

부산연극인 고킨경화 추모공연 산너머 개똥아

일 시 2017년 12월 28일(목)~2018년 1월 14일(일)
평일 오후 7:30, 주말 오후 6:00(월요일 공연 없음) 일광 가마골소극장
입장료 전석 2만원(초중고생 50% 할인)
문의 가마골소극장 723-0568



지난해 7월 암으로 타계한 부산연극인 고킨경화 추모공연 '산너머 개똥아'.

지난 1992년 가마골소극장에서 '꼭두'라는 제목으로 초연된 '산너머 개똥아'는 1995년 '산너머 개똥아'로 개작되어 서울 예술의전당에서 공연된 후 제19회 서울연극제 제회 현대연극상 여자연기상 및 무대예술상, 제11회 고마나루 향토연극제 대상 및 연기상을 수상한 바 있다.

지난 20여년 동안 연희단거리패의 고정레퍼토리로 사랑받아온 '산너머 개똥아'는 사라져가는 전통 민속 연희 중 하나인 '꼭두각시 놀음'을 복원, 우리 민속극에 내재된 풍자와 익살 등 골재미를 살린 놀이판이다.

- 원작/김경화 ● 재구성, 극본/이윤택
- 연출/이돈희

연극 '룸넘버 13'

일 시 1월 4일(목)~3월 4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공휴일 오후 3:30, 6:30(월요일 공연없음) BNK부산은행조은극장 1관
입장료 전석 3만원(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정기회원 예매시 20% 할인)
문의 BNK부산은행조은극장 1588-2757



'라이어의 작가 레이 쿨니의 작품으로, 로렌스 올리비에 베스트 코미디상을 수상한 코미디극. 국회 회기 중에 눈이 맞은 여당 국회의원 리차드와 야당총재 여비서 제인이 호텔방에서 막일을 치르려는 순간 난데없이 시체가 발견되

고, 경찰에 신고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는 곤란한 상황에 국회의원 비서인 조지에게 떠넘기려 한다. 하지만 사태는 점점 더 심각하게 꼬여만 가고 리차드와 제인은 과연 이 사태를 벗어날 수 있을까. 레이 쿨니 특유의 기막힌 반전과 반전에 정치 풍자성을 가미한 '룸넘버 13'은 여당 국회의원과 야당총재 비서의 스캔들을 소재로, 그 과정 속에서 펼쳐지는 황당한 상황과 이를 모면하기 위한 인간들의 모습이 큰 웃음을 선사한다.

해운대문화회관 특별기획공연 뮤지컬 '복순이할배' 시즌 11

일 시 1월 12일(금)~28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요일 오후 4:00(월요일 공연없음) 해운대문화회관 고운홀
입장료 전석 3만원
문의 아트레블루션 010-4820-1736
해운대문화회관 749-7651



괴짜 독거노인 복순이 할아버지의 집에 복지학과 실습생 태수가 봉사

를 간다. 태수는 친구처럼 지내는 옛사랑 지혜의 마음을 돌리려 애쓰지만 지혜에게 사랑을 모른다

는 이유로 거절당하고 복순이 할아버지로부터 사랑의 의미에 대해 배우게 되지만 답답하고 눈치없는 탓에 혼나기 일쑤다. 과연 태수는 불같은 성격의 할아버지로부터 제대로 사랑의 의미를 배울 수 있을까?

전 연령층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로맨틱 코미디 뮤지컬 '복순이할배'는 탄탄한 연출력과 연기력, 귀까지 즐겁게 해주는 주옥같은 OST가 보는 재미를 더해준다.

행사 | Event

뮤지컬 '어린왕자'

일 시 1월 20일 토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4:00
1월 21일 일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부산시민회관 소극장
입장료 전석 4만5천원(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정기회원 예매시 60% 할인)
문의 극단 엄청난 친구들 010-3914-6617



좋은 시나리오와 배우, 감동과 메시지가 있는 공연을 선보이기 위해 연극, 뮤지컬 배우들로 뭉친 '극단 엄청난 친구들'이 선사하는 뮤지컬 '어린왕자'.

원작의 감동을 위해 무대 디자인에서부터 음악, 영상까지 심혈을 기울여 제작한 '어린왕자'는 원작 그대로의 느낌을 살려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무대를 선보인다.

- 연출/서정희
- 단원/이석호(대표), 최경석, 서정희, 하성용, 서유하, 남호윤, 박영희
- 무대세트/블루아트 박성재
- 음악/델파눔 뮤직
- 영상/Modern media 조성주

채환의 논픽션 모노뮤지컬 마흔 즈음에 김광석을 노래하다

일 시 1월 21일 일요일 오후 2:00, 5:3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입장료 R석 5만5천원, S석 3만3천원(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정기회원 예매시 30% 할인)
문의 (주)화랑엔터테인먼트 1644-5564



뮤지컬 배우 겸 포크 싱어송라이터인 채환이 김광석과의 인연을 이야기로 풀어내면서 그에 어울리는 김광석의 노래와 그의 자작곡으로 꾸민 논픽션 모노뮤지컬. 채환은 1997년 찾아가는 콘서트 '희망을 파는 콘서트(1,500회 돌파)'를 시작으로 2005년 자전적 스토리를 담은 '파이팅'으로 데뷔, '스타킹 왕중왕', '히든싱어 김광석편' 등 TV 프로그램과 뮤지컬에 출연했으며 국내 최장기 모노뮤지컬 '김광석 노래하다'로 현재 서울 대학로와 대구 김광석 거리에서 장기 공연 중이다.

이번 무대에서는 김광석과의 극적인 만남과 그와의 약속, 이별, 그리고 그 약속으로 시작된 채환의 새로운 도전이 감동있는 한 편의 드라마처럼 펼쳐진다.

정두환의 음악강좌 '좋은음악 & 좋은만남' 생활 속 음악 이야기

일 시 매주 화요일 오후 7:30(9월 휴강)
보수동 책방골목문화관
입장료 무료
문의 정두환 011-574-0423

문화를 통한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를 꿈꾸는 '문화유목민' 정두환이 진행하는 화요음악강좌 '좋은음악 & 좋은만남'.

프로그램

- 1월 2일 (637회) 음악이란 무엇인가?
- 1월 16일 (638회) 생활 속에서 만난 음악 이야기 1
- 1월 23일 (639회) 생활 속에서 만난 음악 이야기 2
- 1월 30일 (640회) 이 달의 책 읽기 <도시를 걷다> (이훈길 지음, 안그라픽스)

무지카아트홀 성악아카데미 3기 전상철 가곡교실

일 시 1월 8일(월)~30일(화) 매주 월요일 오전 11:00, 화요일 오후 7:30 더무지카아트홀
입장료 수강료 7만원(교재비 포함)
문의 무지카아트홀 010-7191-2878

프로그램
가이드
기타공연장

Art Hall Baum 1월 인문학강좌

일 시 1월 8일(월), 9일(화), 15일(월), 16일(화), 18일(목), 19일(금), 22일(월), 23일(화), 26일(금), 29일(월), 30일(화) 아트홀baum
입장료 수강료 1만5천원(차와 음료)
문의 무지크바움 070-7692-0747
시네바움 010-3827-2005

일본의 미학(2) 하이쿠 영화 하나비, 사랑은 5·7·5

1월 8일(월) 오후 7:00 시네바움(B1)
● 강사/안수현(부산대 한국민족연구소 전임연구원)

클래식 인문학강좌 '박근수의 맛있는 클래식' 제26강-바그너편 III

1월 9일(화) 오후 8:00 무지크바움(2F)
● 강사/박근수(음악평론가)

철학의 숲에서 만난 영화(1), 영화 '요리사, 도둑, 그의 아내, 그리고 그녀의 정부(감독/피터 그리너웨이)'

1월 9일(화) 오후 7:00 시네바움(B1)
● 강사/김재기(경성대글로벌문화학부교수)

발레가 있는 무대 제1강 '발레의 기원과 고전 발레'

1월 15일(월) 오후 7:30 무지크바움(2F)
발레 감상과 인문학을 접목한 발레학 강사 노영재의 '발레가 있는 무대'.

영화의 바다에서 만난 문학(5)_ 시인 에밀리 디킨슨의 '조용한 열정'

1월 15일(월) 오후 7:00 시네바움(B1)
● 강사/홍옥숙(한국해양대학교 영어영문학과 교수)

독립영화의 이해

1월 16일(화) 오후 7:00 시네바움(B1)
● 강사/박도신(부산국제영화제 프로그래머)

오홍선의 돈 이야기(2) '가상화폐와 비트코인'

1월 18일(목) 오후 7:00 시네바움(B1)
● 강사/오홍선(금융교육전문가, 사이버한국외대 금융회계학부 겸임교수)

'여행, 예술을 만나다' 행복한 여행 인문학 이야기 제1강 스페인 남부 안달루시아/예술가들이 사랑했던 도시 세비아

1월 19일(금) 오후 7:30 무지크바움(2F)
● 강사/김성민(아트커뮤니케이터)
아트커뮤니케이터 김성민의 안내로 떠나는 행복한 여행 인문학 이야기.

박근수의 클래식 투어(17) 작곡가 카를 오르프

'카르미나 부리나' 전곡 감상
1월 22일(월) 오후 7:00 시네바움(B1)
● 강사/박근수(음악평론가)

색이 삶을 말하다 제10강 빛의 색채, 생명, 그 성스러운 의문의 시작 -흰색(The White)

1월 22일(월) 오후 7:30 무지크바움(2F)
● 강사/박미송(머스널컬러 전문가)

정천식의 스페인 예술기행(8) 카를로스 사우라 감독의 음악가, 이시크 알베니스의 다큐멘터리, 이베리아(3)

1월 23일(화) 오후 7:00 시네바움(B1)
● 강사/정천식(스페인문화연구원, 기타리스트)

서양미술 산책 제1강

'인간의 힘찬 도약:그리스&로마'
1월 26일(금) 오후 7:30 무지크바움(2F)
● 강사/이한나(아트 디렉터)

슬라브 음악의 스펙트럼

스메타나, 야나체, 라흐마니노프
1월 29일(월) 오후 7:00 시네바움(B1)
● 강사/정해성(문화평론가, 부산대학교 국어국문학 과 강사)

영화에서 만난 과학(1)_1분 타임머신, 그래비티, La Luna, 인터스텔라, Jonny Express, 답십팩트, MAN...

1월 30일(화) 오후 7:00 시네바움(B1)
● 강사/김상욱(부산대물리교육과교수)



전시 | Display

김옥균의 클래식 음악여행

일 시 매주 수요일 오후 3:40 현대백화점 문화센터
매주 목요일 오전 11:00 롯데백화점 부산본점 문화센터
입장료 월 4만원
문의 김옥균 010-6367-0149



'MBC FM 목요일음악감상회'를 기획 연출한 김옥균(시인, 음악치료사) 전 MBC PD가 진행하는 클래식 음악 해설감상회. 내 삶의 휴식과 치유를 위한 클래식 음악을 만나는 자리로, 영상클래식 음악을 알기 쉬운 해설과 함께 감상할 수 있다.

프로그램

베토벤-교향곡 제3번(영웅), 차이콥스키-피아노협주곡 1번
홀스트-모음곡[혹성], 슈베르트-미완성교향곡
쇼팽-피아노협주곡 1번, 무소르그스키-모음곡[전람회 그림]
말러-교향곡 제1번, 멘델스존-바이올린협주곡
브루흐-스코틀랜드환상곡, 모차르트-클라리넷협주곡

소울아트스페이스 개관 12주년 기념 김덕기 '카디널이 보이는 풍경'

일 시 2017년 12월 2일(토)-2018년 2월 14일(수)
소울아트스페이스 해운대
문의 소울아트스페이스 해운대 731-5878

일상적인 가족의 모습과 어우러진 아름다운 자연을 배경으로 행복의 에너지를 전하는 작가 김덕기가 뉴욕을 배경으로 한 신작을 소개하는 전시.



한·일 문화 교류 특별전 허필식, 나카무라 카츠토 작가의 여정 스케치展

일 시 2017년 12월 19일(화)-2018년 1월 21일(일)
스페이스 나무
문의 스페이스 나무 055-374-3500

슈퍼픽션 개인전 'Freddy'

일 시 1월 11일(목)-2월 4일(일) 롯데갤러리 광복점
문의 롯데갤러리 광복점 678-2610

수채화 9인전

일 시 1월 13일(토)-1월 20일(토) 타워아트갤러리
문의 타워아트갤러리 464-3939

타워아트갤러리 특별기획 '제18회 타워현대여성작가전'

일 시 1월 23일(화)-1월 31일(수) 타워아트갤러리
문의 타워아트갤러리 464-3939





서포터즈 공연을 이야기하다

(재)부산문화회관 SNS 서포터즈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블로그 등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홍보활동을 통해 부산문화회관의 공연소식, 정보 등을 시민들에게 알려나가고 있습니다.



황현서
www.instagram.com/hsleder



손난로 같이 따뜻했던 음악극 부산시립극단 제60회 정기공연 '돌아와요 부산항에'

추운 겨울 마음 따뜻해지는 음악극 한 편을 만났다. 이 공연만큼은 꼭 부모님께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이 컸었기에 엄마 손을 잡고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을 찾았다. 1970년대 부산 하야리아 부대, 자갈치시장, 영도, 해양대학교 등을 배경으로 펼쳐진 사랑, 이별, 꿈을 그 당시 유행했던 음악과 춤으로 재미나게 풀어낸 새로운 형식의 공연이었다. 공연을 보기 전에는 1980년대 태어난 내가 내용에 공감할 수 있을까? 태어나기도 전의 음악을 들으며 신나게 즐길 수 있을까? 걱정했던 것이 무색할 만큼 '한동안 뜸했었지', '오 영원한 친구', '미인' 등 너무나도 귀에 익숙한 노래에 어깨를 들썩이고 박수치며 같이 따라 부르고 있는 나를 발견했다.

부산시립극단의 연기와 부산시립무용단의 춤과 노래는 2층까지 관객으로 가득찬 중극장을 뜨겁게 달구었다. 공연이 끝난 후, 엄마는 옛 추억을 떠올릴 수 있어 정말 행복했다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4~50년이라는 세월이 훌쩍 지나 이제는 아련한 추억이 되어버린 현실에 섭섭한 마음이 들었다고 했다. 빠르게 지나가는 세월이 아속하기도 하지만, 훗날 엄마와 나, 그리고 곧 태어날 아기 이렇게 3대가 음악으로 공감할 수 있는 공연을 보고 자신들이 살아온 시대와 삶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모습을 상상해봤다. 앞으로도 부산만의 색깔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공연, 전 세대가 다 같이 공감하며 즐기고 소통할 수 있는 공연들이 많이 만들어지면 좋겠다. 부모님께 효도하고 싶은데 방법을 몰라 고민하고 있다면 새해에는 부모님 손을 꼭 잡고 부산문화회관에서 열리는 다양한 공연들을 보며 행복하고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보길 바란다.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https://www.bscc.or.kr>

(재)부산문화회관 SNS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vivabsc>

트위터 <https://twitter.com/vivabsc>

블로그(네이버) <https://blog.naver.com/bsccorkr>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vivabsc>

카카오톡(채널) <https://story.kakao.com/ch/bsccorkr>

유튜브 <https://www.youtube.com/channel/UCjl-1su5mm546J3PPRJ9B2w>

RECORD

GM뮤직 제공



한국의 대표 튜비스트 이동화 'BEYOND'

▶ 세계 최초, 바흐 무반주 첼로 모음곡을 튜바로 표현하다

섬세한 표현력과 뛰어난 연주력을 겸비한 한국의 대표 Tubist 이동화. 세계적인 악기사 BUFFET CRAMPON이 인정한 B&S Artist인 그가 세계 최초로 바흐의 무반주 첼로곡을 튜바 앨범으로 발매했다. 첫 공식 앨범인 'Soul&Passion'에 이어 두 번째 앨범 'Beyond'에서 이동화는 첼로로도 연주하기 힘든 바흐의 무반주곡을 튜바의 소리로 선사하기 위해, 또 한 번의 한계에 도전했다. 튜바라는 악기를 널리 알리고 대중들에게 가까이 다가감으로써 큰 호평을 받고 있는 이동화는 이번 앨범을 통해 그의 풍부한 감성과 저음의 튜바 소리가 만난 바흐의 무반주 첼로 모음곡으로 지친 우리의 일상에 따뜻한 위로를 전한다.



고상지 'Tears of Pitou'

▶ 한국의 첫 반도네오니스트 고상지의 세 번째 정규 앨범

반도네온 연주자이자 작곡자인 고상지는 일본 애니메이션에 대한 강한 애정으로 자신만의 음악세계를 만든다. 그의 음악 공부의 첫 시작은 반도네온이었다. 일본의 세계적인 반도네온 주자 료타 코마츠(Ryota Komatsu)에게 반도네온을 배우며 탱고에 관한 작, 편곡법을 독학한 고상지는 순수한 탱고 그 자체보다 애니메이션 배경음악과 탱고와의 믹스된 감성의 곡을 쓰게 된다. 첫 앨범에서 에반게리온, 그랜라간 등의 애니메이션에서 영감을 얻었다면, 이번 앨범에서의 주요 모티브는 토가시 요시히로(Togashi Yoshihiro)의 '헌터x헌터(HunterxHunter)'이며 그 외에 '툼을 노려라', '원펀맨', 'Final Fantasy' 등에서 감성을 가져왔다. 오케스트라 편성부터 일렉트로닉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의 곡들로 채워진 이번 앨범에서 그의 메시지는 분명하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어주는 소중한 작품(만화책, 애니메이션) 속의 작가와 캐릭터에 대한 존경과 애정. 그리고 그가 애니메이션에서 느꼈던 스토리는 감성들을 리스너들에게도 전달해준다.



피아니스트 발레리 아파니시예프 'JE SUIS BEETHOVEN'

▶ 스스로 베토벤이 되어 재현하는 아파니시예프의 힘 있는 연주

1974년 브뤼셀에서의 리사이틀을 계기로 망명한 이후 서방측에서 활약하고 있는 러시아 출신의 피아니스트 발레리 아파니시예프의 음반. 발레리 아파니시예프는 연주가로서 뿐만 아니라 작곡도 하며, 프랑스어와 영어로 소설을 출판한 적도 있는 재주꾼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피아니스트로서의 재능은 측정할 수 없을 만큼 뛰어나다. 절묘한 템포로 노래해 가는 그의 피아노는 그러면서도 평형 감각을 유지하고 있어서 유례없는 설득력으로 청중의 마음에 강하게 호소해 온다. 레퍼토리도 넓은 피아니스트로 알려져 있다. 스스로 베토벤이라 자처한 이번 앨범에서 아파니시예프는 베토벤의 가장 유명한 피아노 소나타인 '비창', '월광', '열정'을 통해 그가 스스로 해석한 베토벤의 의도를 연주로 들려준다.



박현주 · 북칼럼니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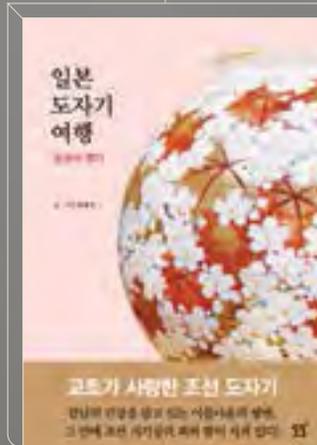
BOOK



유마도

강남주 지음 / 산지니 / 264p / 1만 3천 800원

조선통신사 관련 기록물이 2017년 10월 31일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지정됐다. 이런 성과를 이뤄 낸 일등공신이 강남주 전 부경대 총장이다. 그는 조선통신사의 문화·역사적 가치를 오늘에 되살리고 관련 연구 활성화를 진두지휘해 왔다. 시인이기도 한 그가 조선통신사 시절의 이야기를 소설로 들려준다. 이 작품은 잘 알려지지 않은 변방의 화가 '변박'이라는 인물이 조선통신사 사행선의 기선장이 되어 일본 대마도로 향하는 긴 여정을 담고 있다. 작가는 조선통신사 기록물을 연구하던 중 실제로 논문에서 변박을 만났다. 버드나무 아래 있는 말을 그린 그림 '유마도'는 변박의 대표적 작품으로 손꼽히는데, 일본 시코쿠 섬에 있는 외딴 절에서 발견됐다. 조선에서는 변방에 지나지 않았던 동래의 화가 변박의 그림이 어찌 이 절에 걸려 있는 걸까. 신분이 낮은 변박은 화원이 아니라 조선통신사 사행선의 기선장으로 일본에 갔다. 조선통신사의 선단과 행렬은 일본 각 계층의 사람들에게 크나큰 영향을 끼쳤다. 그림 한 점을 요청하는 일본인들 앞에서 변박의 예술혼이 꿈틀거렸고, 그곳에서 몇 작품을 남겼던 것이다. 변박의 뒤를 따라 조선통신사의 여정을 오늘날 다시 만나보는 작품이다.



일본 도자기 여행 : 교토의 향기

조용준 지음 / 도도 / 520p / 2만원

일본 도자기 여행 시리즈의 저자 조용준은 <일본 도자기 여행 : 규슈의 7대 조선 가마>에 이어 <일본 도자기 여행 : 교토의 향기>를 펴냈다. 일본에서 조용히 몸을 숨기고 도자기를 빚은 조선 사기장의 이야기를 담은 책이다. 그리고 일본의 다도와 다구가 어떻게 발전해왔는지, 왜 발전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밝히고 있다. 일본이 조선의 자기를 좋아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조선인의 손에서 빚은 일본의 명물 도자기는 무사의 존재 가치 그 이상이었다고 한다. 빼앗기느니 차라리 죽음을 선택할 정도였다. <일본 도자기 여행 : 규슈의 7대 조선 가마>에서 조선 자기 문화사를 종합하고 개괄한 저자는 이번 책에서 교토의 조선 자기 흔적을 탐구했다. 교토는 일본 문화 전반에 걸쳐 많은 문화재와 유물이 숨겨져 있는 지역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토는 완전한 일본 색(色)으로 도배한 곳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저자는 조금만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면 교토만큼 조선인의 숨결을 많이 읽을 수 있는 곳도 없다고 말한다. 이 책은 일본 다도에 숨은 조선 자기의 흔적을 파헤치면서 '그 훌륭한 문화를 우리는 왜 지키지 못했는가' 다시 한 번 우리에게 되묻는다.



조선시대 화가 총람 세트(전 2권)

정양모 지음 / 시공아트 / 1,484p / 16만원

한국 회화의 역사를 대표하는 화가 220명 그들의 그림과 서명, 화제, 인장을 모두 만날 수 있는 한국 최초 최고의 화가 사전. 한국 회화의 역사를 다룬 책은 이미 많이 나와 있다. 하지만 한국 회화의 중심을 이룬 화가 220명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보여 준 책은 없었다. 기존의 화가 사전들이 서예가와 화가들을 함께 다룬 것이라면, <조선시대 화가 총람>은 화가만을 다룬다. 회화에 집중할 수 있기에 한국 회화의 소중한 유산을 감상할 수 있는 책이다. 그 화가들의 대표작을 컬러 도판으로 담아 책의 가치가 더 빛나 보인다. 또한 화가들의 수록 순서가 시대별 연대순이라 한국 회화의 변화를 느낄 수 있다. 화가 사전이 동시에 회화사책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한 것이다. 국립중앙박물관장을 지낸 정양모 관장(현 백범기념관 관장)이 60여 년간 현직에 몸담으면서 모은 자료들과 해안으로 선정한 작품들, 그리고 작품에서 따로 떼어 보기 편하게 구성된 서명과 화제, 인장은 한국 미술을 공부하는 전문가들뿐 아니라 우리 옛 그림을 좋아하는 수많은 미술 애호가들에게도 반가운 책이다. 900여 점의 작품, 5천여 점의 글씨와 인장의 방대한 분량이 수록돼 있다.



(재)부산문화회관 후원회 창립총회 개최

1월 16일 오후 6:30 해운대 조선비치호텔

(재)부산문화회관 후원회가 오는 1월 16일 해운대 조선비치호텔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한다.

지난해 부산의 대표적인 문화공간으로서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재단법인으로 출발한 부산문화회관을 후원하기 위해 결성된 (재)부산문화회관 후원회는 앞서 지난해 6월 30일 부산문화회관에서 후원회 회원 4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발기인대회를 가진 바 있다. 이번 창립총회에서는 (재)부산문화회관 박인건 대표이사, (재)부산문화회관 후원회 최수기 준비위원장을 비롯해 후원회 회원 및 관계자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후원회 임원을 임명하고 후원금을 전달할 예정이다.

(재)부산문화회관 후원회는 이사회원(300만원, 500만원 이상), 일반회원(100만원)으로 구분되며, 후원회원들에게는 후원회 대상 음악회 개최,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및 시립예술단 공연 초청, 대극장 좌석 네이밍, 무료 주차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업무협약 체결을 통한 다양한 연계사업 추진

(사)문화복지 공감, 해운대여자중학교 MOU 체결

(재)부산문화회관이 (사)문화복지 공감과 지역 문화나눔을 위한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난해 11월 20일 부산문화회관에서 열린 협약식에서 (재)부산문화회관(대표이사 박인건)과 (사)문화복지 공감(대표 이경혜)은 양 기관의 협력을 통해 문화 소외계층의 문화예술 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창작, 공연 및 전시 등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문화예술 재능기부, 문화나눔 활성화 등 문화소외계층 지원을 위해 공동 노력해나가기로 했다. 이번에 업무협약을 맺는 (사)문화복지 공감은 문화복지 법인으로서 전국에서 처음 만들어진 단체로, 그동안 문화소외계층 전체를 아우르는 다양한 사업을 펼쳐오고 있다.



또, (재)부산문화회관은 지난해 12월 8일 해운대여자중학교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해운대여자중학교 학생들의 정서함양을 위한 다양한 문화예술사업을 개발하는 한편, 부산문화회관 및 부산시립예술단 공연관람을 통한 문화예술관람 저변 확대를 위해 공동으로 힘써나가기로 했다.

한편, (재)부산문화회관은 지난해 1월 재단법인으로 출범한 후 부산남구청 UN문화특구, 대전예술의전당, UN평화기념관, 브니엘예술고등학교, 부산예술고등학교 등 각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상호협력을 통한 다양한 연계사업을 펼쳐오고 있다.



©Park Sang Yun

부산시립예술단

2018년 동아시아 문화도시 개막식 참가

부산시립예술단이 2018년 동아시아 문화도시로 선정된 부산을 대표해 중국 하얼빈과 일본 가나자와에서 열리는 '2018년 동아시아 문화도시 개막식'에 참가한다.

'동아시아 문화도시'는 지난 2012년 제4회 한·중·일 문화장관회의에서 한·중·일 3국 간의 오랜 갈등과 반목을 도시 간 문화교류와 협력을 통해 해소해 나가자는 데 합의하면서, 매년 각 나라의 문화적 전통을 대표하는 도시 한 곳을 선정해 문화교류 행사를 개최해오고 있다. 2018년 올해는 한국의 부산을 비롯해 중국 하얼빈, 일본 가나자와가 선정됐다.

부산시립예술단은 2018년 본격적인 활동을 앞두고 한·중·일 3국에서 펼쳐지는 개막식에 참가한다. 부산시립무용단은 1월 4일 중국 하얼빈 상그릴라 호텔에서 열리는 '2018년 동아시아 문화도시 하얼빈 개막식'에 참석한다. 이날 무대에서 부산시립무용단은 드라마 '대장금' 주제를 배경으로 전통춤인 한량무와 산조춤 한쪽의 풍속화로 이미지화한 즉흥무 등 대중음악에 한국춤의 미학을 담은 '코리아 댄스유토피아'로 축제의 흥을 돋운다. 부산시립합창단은 앞서 1월 4일 개막식 부대행사로 열리는 '동아시아 우정 빙설의 운치'에 참가, 그리운 금강산, 아름다운 강산 등 한국가곡으로 축하공연을 펼친다. 한편, 부산시립교향악단은 3월 2일 일본 가나자와에서 열리는 '2018년 동아시아 문화도시 가나자와 개막식'에, 부산시립합창단과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은 4월 12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열리는 '2018년 동아시아 문화도시 부산 개막에 참가한다.'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신임 부지휘자에 지휘자 홍희철 선임

동래구 국악관현악단, 부산국악오케스트라 지휘자로 활동하고 있는 지휘자 홍희철이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신임 부지휘자로 선임됐다. 부산대학교 한국음악학과에서 거문고를, 중앙대학교 대학원에서 지휘를 전공한 홍희철은 경북도립국악단 상임단원을 거쳐 부산예술고등학교, 효원국악관현악단, 진주시립국악관현악단 지휘자로 활동했다. 홍희철 부지휘자는 현재 부경대학교, 경성대학교, 동아대학교, 부산여자대학교 외래교수로 있으며, 부산MBC 라디오 프로그램인 '가정음악실'에서 '홍희철의 우리음악이야기'를 진행하고 있다.



퍼즐로 배우는 문화상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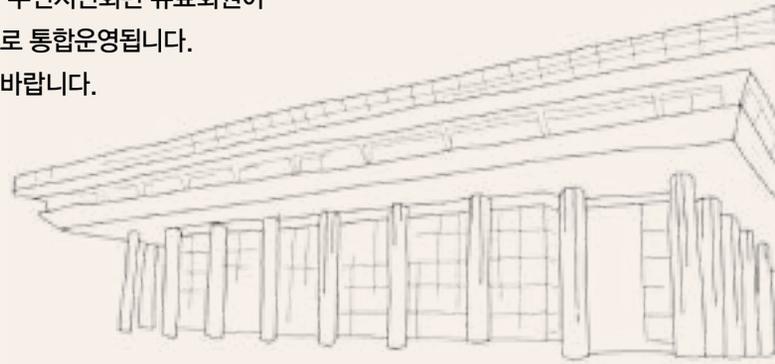
12월호 퍼즐 당첨자

엘로인플라워 이신영(수영구 수영로), 정미란(기장군 정관5로)
큰집 식사권 김명수(사하구 사하로), 김민희(영도구 태종로)
 문정화(사상구 엄궁북로), 안현정(서구 대신공원로)
 조채환(수영구 광안해변로)

BNK부산은행 고수진(동구 중앙대로), 김태우(서구 구덕로), 이진성(동래구 총명대로)
조은극장 이효정(연제구 반송로), 정미애(남구 신선로)
공간소극장 권선경(동래구 명륜로), 김소영(수영구 연수로)
 손주영(남구 석포로), 윤미숙(중구 중앙대로), 이현주(수영구 망미변영로)

(재)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가입안내

2017년 10월 통합된 부산문화회관, 부산시민회관 유료회원이
(재)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으로 통합운영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회원가입

가 입 신 청 홈페이지(www.bscc.or.kr) 또는 전화 051)607-6074~5
무통장입금 부산은행 101-2042-6796-01 [예금주/(재)부산문화회관]
방 문 신 청 부산문화회관 사무동(2층) 홍보마케팅팀

관람권 예매

예 매 수 령 홈페이지(www.bscc.or.kr) 또는 전화 051)607-6074~5
정기회원 카드 또는 예매확인증 지참(매표소 제시)

주의사항

관람권 예매취소는 공연 하루 전 17:00까지 가능(당일 취소 불가)
관람권 예매 후 가상계좌 입금은 기간 내에 미 입금 시 예매 자동취소
정기회원(유료) 가입 5일 이후 취소 불가

문의

부산문화회관 홍보마케팅팀
TEL. 051)607-6074~5 FAX. 051)607-6079
※ 평일 09:00~18:00(토·일·공휴일 제외)

공통혜택

- 가입기간(1년) · 정기회원 카드 발급
- 정기회원 전용 라운지 무료이용(회원카드 제시, 음료 등 제공)
- 월간 예술정보지 '예술예의 초대' 우송
- 공연정보(SMS) 제공 · 아카데미 수강료 할인(10~20%)
- 부산시내 외부공연 및 대관공연 입장료 할인(주최 측 협의에 한함)
- 부산시립예술단원과 함께 떠나는 테마여행(매월 1회 추천, 여행 일정 변경될 수 있음)
- 부산문화회관 주차장 할인(회원카드 제시시 50%)
- 제휴업체 할인 등(제휴업체 사정상 변경될 수 있음)



VIP

- 연 회 비** 10만원
- 초 대 권** 8매(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기획공연 4매, 부산시립예술단 공연 4매)
- 할인매수** 6매(공연당)
- 특별혜택** 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지정된 기획공연 및 부산시립예술단 공연(5개 단체) 초대권 각 4매 증정
- 지정된 기획공연, 지정된 객석 수에 따라 선착순 예약 • 지정된 기획공연, 지정된 좌석에서 예약가능
 - 초대권은 가입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사용(전화예약)
 - 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기획(전시)공연 및 부산시립예술단공연 입장료 할인(10~50%)
 - 정기회원을 위한 음악회 초대 • 부산문화회관 무료주차권 10매
- ※ 지정된 기획공연은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월간예술정보지 <예술에의 초대>를 통해 따로 공지
 ※ 부산시립예술단 5개 단체 : 교향악단, 국악관현악단, 합창단, 무용단, 극단



SPECIAL

- 연 회 비** 5만원
- 초 대 권** 4매(부산시립예술단 공연 4매)
- 할인매수** 4매(공연당)
- 특별혜택** 부산시립예술단 공연(5개 단체) 초대권 4매 증정
- 초대권은 가입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사용(전화예약)
 - 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기획(전시)공연 및 부산시립예술단공연 입장료 할인(10~30%)
 - 정기회원을 위한 음악회 초대 기회제공 • 부산문화회관 무료주차권 6매
- ※ 부산시립예술단 5개 단체 : 교향악단, 국악관현악단, 합창단, 무용단, 극단



MEMBER

교향악단·청소년교향악단 | 국악관현악단
 합창단·소년소녀합창단 | 무용단 | 극단

- 연 회 비** 3만원
- 초 대 권** 2매(부산시립예술단 공연 2매)
- 할인매수** 2매(공연당)
- 특별혜택** 부산시립예술단 공연(5개 단체) 가입단체 초대권 2매 증정
- 초대권은 가입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사용(전화예약)
 - 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기획(전시)공연 및 부산시립예술단공연 입장료 할인(10~30%)
 - 정기회원을 위한 음악회 초대 기회제공 • 부산문화회관 무료주차권 4매
- ※ 가입단체 초대권증정 및 비가입단체는 예술단공연입장료 할인율이 달라질 수 있음.

단체가입 할인 : 20명 이상(10%), 30명 이상(20%), 50명 이상(30%)

문의 : 부산문화회관 홍보마케팅팀 TEL. 051)607-6074~5 FAX. 051)607-6079 * 평일 09:00~18:00(토·일·공휴일제외)

VIP

(재)부산문화회관 VIP 회원에게만 드리는 특별한 혜택

다양한 할인혜택으로 문화생활의 필수품으로 자리 잡은 (재)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제도는 높은 할인율과 초대권 증정, 회원을 위한 음악회 등 다양한 혜택으로 보다 많은 관람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부산문화회관 VIP 회원에 가입하시면 지정 기획공연 중 초대권 4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초대권 사용이 가능한 공연은 월간 예술정보지 <예술에의 초대>나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www.bscc.or.kr)를 통해 공지되며, 공지된 공연 중 원하는 공연을 선택하셔서 전화로 사전 예약하시면 됩니다. 아래 공연은 2018년 예약이 가능한 기획공연으로 공연예매 시작과 함께 전화로 예약가능하며, 이후 공연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유럽 신인 오페라 갈라 콘서트

2월 24일(토)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소프라노 김리라, 임수연, 정한나, 테너 이명현, 이준범, 정필립, 바리톤 이규봉, 조병익, 베이스 김신호 등 지금 현재 유럽 오페라 무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신인 성악가들의 무대.

유럽 거장 초청 프랑스 실내악의 밤

2월 25일(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피아니스트 올리비에 가르동을 비롯해 변애영, 김가람, 바이올리니스트 로랑 코르사, 첼리스트 아르토 노라스, 최주연, 플루티스트 필립 베르놀드, 이소영, 피아니스트 김가람 등 유럽에서 활동하는 연주자들이 마련하는 실내악의 밤.

서혜경 피아노 리사이틀

2월 27일(화)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건반 위의 여제' 피아니스트 서혜경이 2018년 인상주의의 대표적 작곡가인 드뷔시 서거 100주년을 기념해 마련하는 독주회.

베토벤 협주곡 전곡 시리즈

3월 15일(목)~17일(토)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음악의 악성' 베토벤 협주곡 전곡을 감상할 수 있는 특별한 무대.

2018 그레이트 챔버 시리즈

4월 13일(금), 7월 13일(금), 11월 23일(금)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실력파 해외 실내악단들이 전하는 폭넓은 레퍼토리로 실내악의 매력을 만날 수 있는 무대.

피아니스트 이반 크반 리사이틀

5월 18일(금) 부산문화회관 챔버홀

2017년 부조니 국제피아노콩쿠르 우승자인 피아니스트 이반 크반을 만날 수 있는 특별한 무대.

오페라 in 콘서트 '돈 조반니'

6월 16일(토)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오페라 전곡을 대형 세트를 배제하고 콘서트 형식으로 구성, 음악적 즐거움을 선사하는 'Opera in Concert'.

러시아 내셔널 오케스트라 연주회

6월 29일(금)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러시아의 대표적인 관현악단인 러시아 내셔널 오케스트라 초청 무대.

카푸송&카메라타 잘츠부르크

10월 20일(토)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프랑스를 대표하는 바이올리니스트 르노 카푸송과 오스트리아를 대표하는 챔버 오케스트라 '카메라타 잘츠부르크'가 함께 하는 무대.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홍보마케팅팀(607-604~5)

VIP

스튜디오지브리의 아름다운 영상미학과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을 함께 듣는 잊지 못할 감동!

BUSAN CITIZEN'S HALL
부산시민회관 신년기획공연

별을 산날

지브리 OST 오리지널 그룹 내한공연

with 어쿠스틱카페

GHIBLI in Winter Vacation

2.10 SAT 3PM, 7:30 PM
2.11 SUN 3PM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음악감독
츠루 노리히로
Norihiro Tsuru



조연상화 및 작품감독
이노우에 나오히사
Naohisa Inoue



주최 부산관광공사 (재) 부산문화재단 시민회관 본부

문의 051-630-5200
R석_60,000원, S석_40,000원, A석_20,000원

후원 부산관광공사

예매 부산시민회관 / 인터파크



시민 뜨락축제

시민과 함께하는
시민야외축제

2018년에도
"시민뜨락축제"는
계속됩니다



장소 :
부산시민회관
야외광장

2018.
4.6(금)~5.18(금)
9.7(금)~10.19(금)

신명가득 연극한판 Total performance theater

메밀꽃 필 무렵

When buckwheat flowers bloom



2018 평창올림픽 성공기원

부산시립-강원도립극단
교류공연

2018. 2. 8(Thu)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전석무료(1인 4매/전화예매)

홈페이지 : <http://bscc.or.kr>

문의 : 607-3125

주최 | 부산문화회관

주관 | 부산시립극단

출연 | 강진희 양홍주 이재욱 이선희 김동민 홍의준 고문선 개현옥 황인욱 전시연 선승수 정혜지 하경한 박가영 김상나 이준철 안형국 객석희 김태항
원작_이효석 / 극본_정병철 / 연출_윤정환 / 안무_조성희 / 음악감독_엄태환 / 노래·연주_이단비 김한림 전천성 송수민 고안나 / 예술감독_전옥현

부산시립무용단 특별기획공연
Busan Metropolitan Dance Company

안무가 프로젝트 **몸**

으로 쓰는
시

Body Language

부산시립무용단 예술감독 김용철
Artistic Director Kim, Yongchul

김시현_
롱 타임 노 씨
이용진_
사자후(who)
창영진&박미나_
두 사람
이현주_
칠구년 시월생
남도옥_
르쌍스 Re-ssance

2018. 1. 17(wed) 19:3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주최  부산문화회관

주관 부산시립무용단

관람료 5,000원

문의 051-607-3121 / www.bscc.or.kr



NAVER TV



FACEBOOK



꼬등어

GGO
DEUNG O



© DesignBusan

꼬등어의 상상력으로 일상에 감각을 입히다

DESIGN IVY*



*꼬등어는 부산을 상징하는 시어(市魚) 고등어를 모티브로 해서 만들어진 캐릭터입니다.

www.designivy.com

분한하게 즐기자! 근로원 워터파크



핫잼~

꿀잼~!



실내 온도 30°C
스파 온도 40°C
물 온도 30~35°C



택시비 지원



어린이 케어 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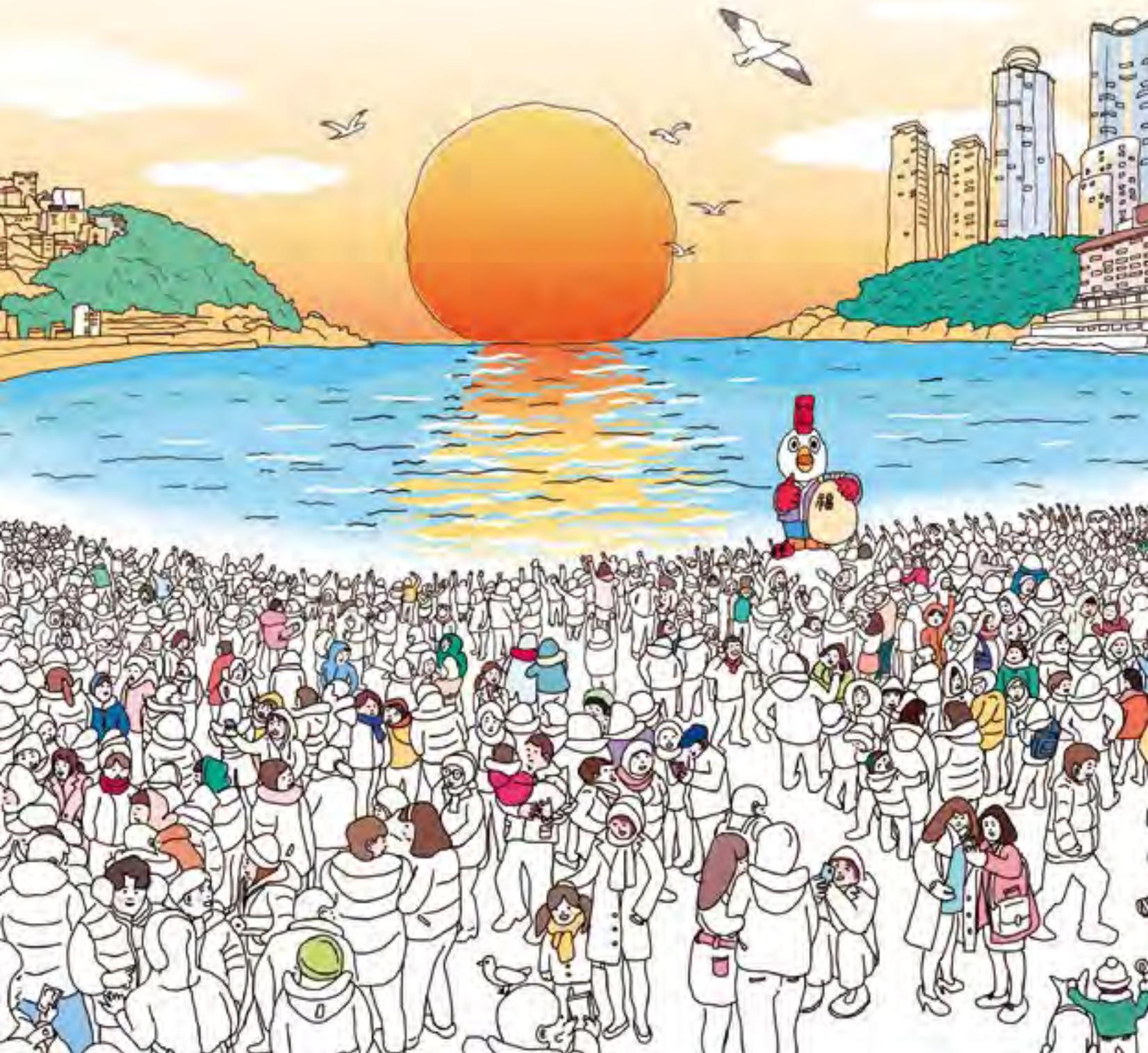
 Blue One
WATER PARK

www.blueone.com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난 한 해, 보내주신 관심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새해에는 뜻하시는 바 모두 이루시고
항상 건강과 만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 소식지
- PPT 디자인
- 일러스트
- 출판
- 카달로그



보람 있는 후원, 명예로운 모임 (재)부산문화회관 후원회 가입안내

GUIDE A MEMBER OF THE ASSOCIATION FOR THE BUSAN CULTURAL CENTER

○ 기본 예우 ○



후원회 전용 룸 이용



부산시립예술단 전 공연 무료 관람 제공
(동반 1인 포함 / 사전 신청자에 한함)



예술에의 초대
소식지 발송



연(분기 또는 반기)
후원회원 대상 음악회 개최



후원 회원명단 게재
(후원회 홈페이지, 월간지 등)



대극장 좌석 네이밍



후원회 멤버십 카드 발급



회원패 증정



무료 주차혜택 제공
(본인 차량에 한함)

○ 회원별 예우 ○

단위: 만원

구분	후원 금액	법인/개인	기획공연 및 전시 무료 초대		아카데미	컨퍼런스 홀	좌석 네이밍 (대극장)
			기획공연(연간)	전시			
이사 회원	500 이상	법인/개인	- 기획공연 8매 - 기획공연 및 예술단공연 입장료 할인(30~50%)	본인·배우자 무료	본인·배우자 무료	1회 무료 (연간)	2개 좌석
	300		- 기획공연 6매 - 기획공연 및 예술단공연 입장료 할인(30~50%)	본인 무료, 동반 1인 50% 할인	본인 50% 할인	50% 할인	
일반 회원	100	개인	- 기획공연 4매 - 기획공연 및 예술단공연 입장료 할인(30%)	본인 무료, 동반 1인 50% 할인	본인 10% 할인	20% 할인	1개 좌석

※ 법인회원은 300만원부터 가능하고, 후원회원 예우는 법인의 대표와 배우자에 한함. ※ 공연(기획공연, 예술단공연) 무료초대는 반드시 사전 예약을 하여야 하며, 조기매진 시 초대권 제공 불가함. ※ 전시, 아카데미, 컨퍼런스 홀 사용 등은 반드시 사전 신청자에 한함. ※ 일부 공연 및 전시의 경우 공동주최 등의 사유로 예우사항(할인율 등)이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연회비는 2018년부터 적용되며 규모 등은 창립총회에서 정할 예정임. (창립총회는 2018년 1월 중 개최예정)

가입문의 : (재)부산문화회관 후원회 사무처장 운영기(010-7361-7273)

당신의 스마트 폰

잘 보이시나요?

내가 벌써 노안인가?

누구나 느끼면서도 당혹해 하는 노안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CUSTOM-Q
노안교정술

스마일
노안교정술

노안과 백내장을 한번에!

다초점
인공수정체

✽ 누네빛안과

롯데호텔 14F | 051.810.5678 | www.nunevit.com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36회 정기연주회

BUSAN PHILHARMONIC ORCHESTRA

부산시향과 최수열의
2018 신년음악회
NEW YEAR'S CONCERT

2018. 1. 19 금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지휘 최수열 | 사물놀이 사물광대

Program

요한 슈트라우스 2세 「박쥐」 서곡
Johann Strauss II Overture to "Die Fledermaus"
강준일 사물놀이와 관현악을 위한 협주곡 「마당」
클로드 드뷔시 「바다」, 3개의 교향적 스케치
Claude Debussy "La mer", trois esquisses symphoniques, L.109

주최 부산문화회관 티켓 R석 20,000원 • S석 15,000원 • A석 10,000원 • B석 5,000원
예매 www.bsoc.or.kr 문의 607-3111-3113(교향악단), 6075(정기회원)

▶ 할인 50% ▶ 장애인 | 국가유공자 | 다자녀가정 | 임신부 20% ▶ 정기회원 | 학생(만24세이하) | 외국인 ※ 단체(10-30명) 및 학생단체(3,000명권) ▶ 전액문의
▶ 서툼버스 운행(무료) • 출발지: 대연지하철역 5번출구 유엔교차로 앞(100m "7번가 피자") → 부산문화회관 • 출발시간: 월-금, 공연 1시간전/90분간외회 운행